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부산문화회관, 구·군 문화회관(해운대, 을숙도, 금정, 동래, 영도), 부산시민회관, 감만창의문화촌, 조선통신사역사관, 사상인디스테이션, 흥티아트센터, 도시철도 북 하우스, 또따또가 운영센터, 영화의전당, 부산 시립미술관, 영광도서관, 부산지역 관광안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포처 문의 : 051-745-7224 이메일 : bscf@bscf.or.kr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www.bscf.or.kr



문화예술정보지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31 Winter 2018

공감 그리고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 31 Winter 2018



김지석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부산



어는글

04 기억해야 할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

공감의 뱃고동

- 08 Space | 공간의 부활 그리고 탄생
- 16 Harmony | 고령화사회에 미치는 문화예술의 역할
- 20 Issue | 예술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24 People | 누구와 견주어도 당당한, 그러나 아직 한참 목마른 장애예술인



돌아와요 부산鄉愛

- 54 니, 그거 아나? | 확대경으로 들여다 본 근대의 풍경 부산의 다방
- 60 누꼬? | 아시아영화의 행성(行星), 김지석
- 66 거 가봤나? | 과거 속으로의 여행 광장마을 골목

공감 Review

- 32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데이, 무엇을 위한 공감인가?
- 38 나는 왜 <도시재생을 넘어 문화예술이 있는 삶으로>를 투고했는가?



그리고 재단

- 74 듣기 | 공업 단지에 피어난 예술 무지개 홍티아트센터
- 76 말하기 | 부산문화재단 AFIT(Artist + Benefit) 카드 출시
- 78 보기 | 숫자로 보는 2018 부산문화재단



B-side

46 B-side | 우리는 관객이다



커버스토리 _ 누꼬?

아시아영화의 행성 같았던 존재,
김지석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를 추억하다.

문화예술정보지 「공감 그리고」

통권 31호 정기간행물(부산남 바00007) ISSN 2586-1077
 등록일 2011. 6. 23 발행일 2018. 12. 23
 담당부서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 051-744-7707 www.bscf.or.kr
 편집위원 이재희 문진우 양화니 정민정 정상도 이연승 홍동식
 편집기획 박승환 안혜민
 디자인 및 제작 효민디앤피



기억해야 할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

글 정민정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기획경영실장, 본지 편집위원

요즘 굳이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지나간 순간들을 떠올려 곱씹어보는 습관이 생겼다. 10대 시절의 추억이 서린 동네가 10여 년의 실랑이 끝에 재개발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이주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일까. 그리고 보니 태어나 처음 자랐던 동네도 떠난 지 몇 해 후에 재건축으로 낯선 아파트가 되어버린 걸 멀리서 바라봤던 기억도 있다. 태어나 유치원과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과 뛰어 놀았던 골목도, 사춘기 하잘 것 없어 보였던 일상을 견디며, 그래서 가끔 벗어나고 싶기도 했던 동네도 이제 없다. 아찔한 속도로 개발과 성장을 추구해 온 우리 사회에서 딱히 새로운 일도 아니지만, 이제 그 동네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니 새삼 복잡한 심경이 교차했다.

솔한 개인들의 삶과 기억의 집성체인 마을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거대한 아파트 구조물로 바뀌는 것이 다반사인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만들어가는 작은 공간들의 소식이 더욱 반갑고 정겹다.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공간에서 재개관을 준비하는 '공간 소극장'의 소식과 인문학 카페였던 곳을 책, 커뮤니티, 공유 오피스가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생각하는 바다'의 이야기로 <공감 그리고>의 겨울호를 연다.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되돌아보는 '고령화 사회에 미치는 문화예술의 역할', 창작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던 블랙리스트 사태의 끝나지 않은 기록, '예술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우리 현실에 대한 또 다른 관심과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 음악을 사랑하고, 도전을 즐기는 밴드 '타닝포인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된다.

공감 리뷰에서는 부산문화재단이 관련 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주관하는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행사의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급속한 도시 재개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추진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획일화의 위험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도 실렸다. 부산의 대표적인 예술영화 전용관이었던 국도예술관의 폐관 이후, 새로운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을 통해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관객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사람들의 반가운 소식도 전한다.

부산의 숨겨진 매력과 인물을 찾아가는 '돌아와요 부산'에는 다방이라는 공간을 통해 부산의 시대별 풍경과 이야기를 담은 '부산의 다방'과 근대 수리조선산업의 발상지였던 영도 대평동에서 새로운 문화적 실험을 하고 있는 강강이예술마을의 다양한 풍경을 담은 포토에세이가 실렸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와 아시아영화를 위해 헌신했던 김지석 프로그래머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을 함께 담았다.

새해가 밝았지만 조금 발간이 늦어진 <공감 그리고> 겨울호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잊지 않고 되돌아봐야 하는 소식들이 많이 실렸다. 연초에는 저마다 새로운 계획과 포부에 분주하지만, 그럴수록 차분히 돌아보고 둘러보는 여유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길 권한다.

공감의 벚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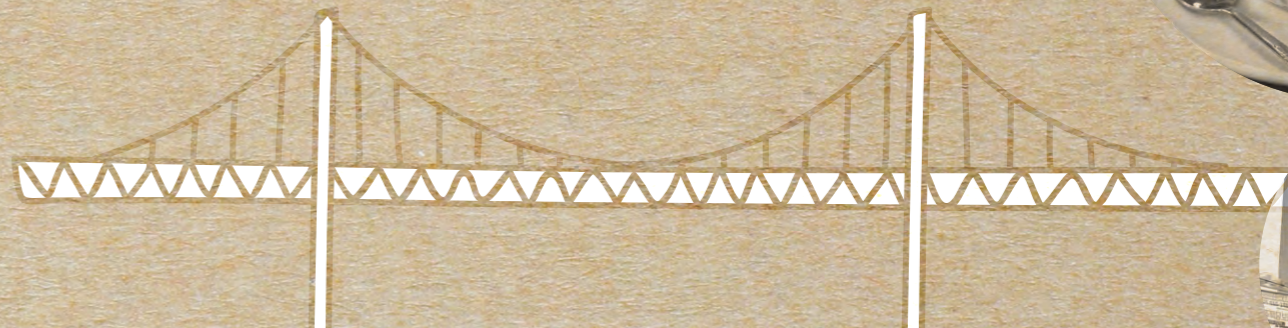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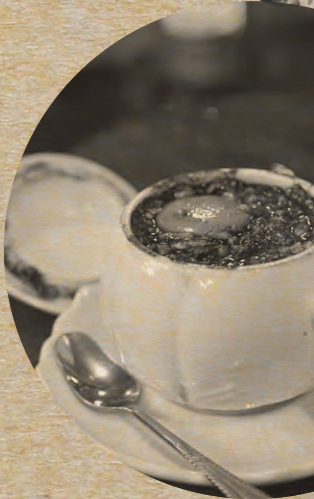
008 공간의 부활 그리고 탄생
- 전상배 연출가 / 박진명 생각하는 바다 대표, 예술가와 지역운동가 사이의 문화기획자

016 고령화사회에 미치는 문화예술의 역할
- 박응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부장

예술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김윤규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민간위원, 댄스씨어터 틱 예술감독

020

024 누구와 견주어도 당당한, 그러나 아직 한참 목마른 장애예술인
- 전용미 드림꿈센터 대표, 문화예술기획자 및 교육강사



공간의 부활 Reborn 그리고 탄생 Birth

사회가 단순한 개인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유기체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듯, 공간 내지 장소 역시 머무르는 사람들과 그 손길에 의해 천차만별로 모습을 바꾼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곳이 사라지고 저곳이 생겨나는 요즘, 소중한 인연들이 뭉쳐 15년째 지켜나가고 있는 공간과 이제 막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새로운 공간이 있다. 바로 '공간 소극장'과 '생각하는 바다'이다.



인연이 왔기에...

글 전상배 연출가

한 인연을 만나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다.
공간 소극장이라는 인연이 내게는 그러하다.
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도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인데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인연으로 달았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인연이다. 셀 수 없이 많은 관객과 연극인들과 후원자들을 만나게 하였고, 그 인연은 확장 되어 서로에게 또 다른 많은 인연들을 낳게 하였으니, 공간 소극장은 인연을 만들어내는 매개체 역할을 해왔다. 일일이 이름을 열거할 수는 없지만 연극 인생의 시작을 공간 소극장과 함께했던 수많은 연극인들, 연극 인생의 여정을 함께 나누었던 선배들, 연극 예술을 접하고 나누었던 관객들, 순수한 후원자들 등 감사한 많은 인연들... 인연을 만들어간다는 것.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이다. 세상은 결국 그 인연 속에서 돌아가기에... 그래서 아닐로그라는 것, 연극이라는 것이 고향의 향수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지탱해주는 인연들로 쌓아올린 공간

2004년故 허영길 선생님께서 SH공간 소극장이라는 이름으로 김만중 연출과 함께 극장 문을 열었다. 2005년 내가 합류하게 되면서 SH를 빼고 공간 소극장이라는 이름만 사용하게 되었다. SH는 개관 당시 건물주였던 의사 허원영 원장님의 개인적인 인연과 관계있는 이니셜이라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었던 이유였다. 내가 합류하던 당시 공간 소극장은 이미 빛더미였고 (주)코엔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나는 공간 소극장의 경영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우수한 작품들을 기획공연하며 벌이를 해서 공간 소극장의 작품 제작에 모두 투입하고 빛을 갚아나갔다. 나 개인적으로는 살고 있던 집까지 팔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극장은 겨우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나마도 잠시, 뜻밖의 불운이 찾아왔다. 2008년 당시 건물주가 건물을 팔고 떠나면서 이광재 정형외과가 들어왔고 새 건물주가 월세를 두 배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나가라는 말이었다. 극장을 완전히 접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지만, 2008년 12월 12일 지금의 자유한국당 건물로 이사를 했다.

이사할 공간의 철거비만 3천만 원. 이사를 하면서 사채까지 동원해 자금을 마련했다. 공간 소극장은 그렇게 내 개인의 빛으로 다시 개관을 하게 되었고, 나는 수억의 빚을 지게 되었다. 하지만 약 5년의 시간 동안 그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다 갚지 못한 빚도 있다. 부모님께 손 벌린 빚, 개인적인 친분으로 얻어진 빚들... 자생력을 갖기 위해 꾸준히 창작 개발을 시도했다. 그리고 꾸준히 공부했다. 힘든 가운데 경성대학교 연극 석사과정도 졸업했다. 빛으로부터 공간 소극장이 자유로워지는 길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에. 흔쾌히 돈을 빌려주신 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며, 공간 소극장이 가져야 할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했기에. 물론 경제적 궁핍함은 늘 함께했지만...

작품으로 인정받고 이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질 즈음 또 하나의 좌절이 찾아왔다. 공간 소극장을 비워달라는 건물주의 통보. 닥치는 시련들에 익숙해져버린 것일까? 눈물도 나지 않는 메마른 슬픔이 찾아왔다. 또다시 고민하고 고민하는 시간. 나를 바라보는 극단 어니언킹의 단원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공간 소극장을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는 많은 분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내가 걸어왔던 작은 오솔길에 그늘을 만들어주었던 많은 나무들.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어떻게든지 나무들에게 빚을 갚아야겠다는 마음. 나를 옥죄어왔던 고민은 결국 또 다시 시작이었다. 공간 소극장은 쓰러지지 않는다. 공간 소극장은 그냥 사라지기에는 빛이 너무 많다. 그늘을 만들어주었던 나무들에게 내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깨끗하고 당당하게 다시 서는 것이다. 학사장교로 인제 원동 지역에서 7년여를 근무한 기억이 났다. 그 가운데 영하의 겨울 밤. 야지에서 매복을 하며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발가락을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던 그 날. 발가락을 데워줄 아무런 방법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때 나는 세상으로 나갈 꿈을 꿔!

지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장

나는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어딘가에는 공간 소극장을 다시 개관할 장소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다시 또 빛을 지게 되겠지만 좋은 작품으로 좋은 모습으로 그 빛을 감아 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며,

그렇게 물색 중에 대연역 상가 내에 괜찮은 장소가 있다는 연락이 왔다. 개인적으로 부산교통공사에 문화 예술자문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니 관계자들로부터 장소 물색에 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이었다. 연락을 받자마자 극단 식구들과 함께 답사를 갔다. 바로 결정을 하고 계약을 했다. 어차피 빛을 내기로 했으니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공간 소극장 재개관! 2019년 1월 또는 2월.

연극 예술이란 뭘까? 나는 어떤 무대를 만들고 싶은 것인가? 공간 소극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공간 소극장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공간 소극장을 응원하고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은 우리가 어떤 내일이기를 바라는가? 공간 소극장의 레퍼토리 작품들과 지난 작품들을 생각나는 대로 들추어본다. <신의 아그네스>, <년 특별하단다>, <행복을 굶는 헨젤과 그레텔>, <재재와 루돌프>, <굿모닝 대디>, <황소와 도깨비>, <봄바라기>, <클라우드 나인>, <일드일>, <보이체>, <짜퉁>, <보이지 않는 사람들>, <사랑 톡톡>, <해피 앤 댄스>, <우리 자기 여보 당신>, <안티고네>, <천국 주점>, <소중한 우리>, <돌아서서 떠나라>, <엄마, 다시 가을이 오면...>, <별어곡>, <어린왕자>, <똥벼락>, <아빠들의 소꿉놀이>, <크리스마스에 30만 원을 만날 확률>, <초대_바다에게 말을 걸다>, <심술도깨비 친친>, <하이틴 드림>, <오지랴 오부장>, <소중한 우리>, <봄이 오는 소리>, <곰>, <굿 닥터>, <하녀들> 등등. 그리고 여러 행사들. '나도 배우다: 시민연극교실',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 '광대 연극제', '도시철도 문화예술제', '청년 그 열정 속으로' 등등.

공간 소극장의 작품들을 들추어보며 떠오르는 것은 소통, 공감, 아름다운 동행 같은 말들이다. 교육 관련 콘텐츠도 있고 역사를 돌아보며 세상의 변혁을 꿈꾸는 작품도 있고, 고단한 마음을 위로하는 작품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지 이제 다시 시작한다. 함께하는 식구들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지난 시간 공간 소극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것은 지역민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예산 부족에 허덕이면서도 매년 전국 곳곳의 소극장과 연대해 다양한 지역 작품을 모아 냈던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이 대표적으로 그랬다. 대만과의 작품 공동 제작과 교류작업들도 그랬다. 이제 단원들과 함께 지역민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세상 사는 이야기를 꾸준히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다가온 아름다운 인연들을 끊을 수 없기에! 공간 소극장은 그 인연들을 만들어내는 용광로이기에! 공간 소극장은 계속되어야 하며 나는 아직 할 말이 많다. 나의 예술세계는 돈이 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후대 연극인들에 의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 세상 사람들 누군가에 의해 끊이지 않고 회자될 것이다.



광안리 바다에 '생각하는 바다'

글 박진명 생각하는 바다 대표, 예술가와 지역운동가 사이쯤의 문화기획자

광안리 고틀머리 민락수변공원 가는 길목, 어부 그림이 그려진 어민활어직판장 주차타워 근처에 '생각하는 바다'라는 요상한 문화공간을 열었다. 다섯 살 딸아이는 공간의 이름을 들 때마다 "바다가 어떻게 생각을 해?"라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파도가 왔다 갔다 끌렁이듯이 생각하겠지"라고 대답한다.

달처럼 '바다'에 주목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생각의 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바'에 주목한다. 함께 만든 사람들의 생각해온 바뿐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를 이 공간을 통해 채워갈 예정이다. 생각하는 바다 이전에 이 공간은 '카페 바다'였다. 카페 바다는 음악과 와인인 있는 인문학 카페였다. 카페 바다 이전에는 노래방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면 민락동이 매립되기 전 이곳은 진짜 바다였다. 바다였던 곳이 육지가 되었고, 여러 인연을 거쳐 다시 생각하는 바다가 되었다. 생각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터라 변할 수 있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생각하는 바다에 모인 생각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BOOK: 책장 공유와 독립서점 어부들

생각하는 바다 벽면 한 쪽에는 사과박스 크기의 책장이 가득하다. 이 책장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양받아 자기 관심이나 스타일 대로 가꾸어간다. 그리고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책장을 분양받은 주인들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관심과 개성을 지닌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공유책장이다. 텃밭처럼 1년간 분양받은 책장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엄선한 책, 아이와 함께 읽는 그림책, 삶을 고양시킨 인생의 책들로 채우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 한 권과 아끼자기한 소품으로 채우기도 한다. 주인에 따라 달라지는 텃밭처럼 제각각인 책장들이다. 어떤 책장은 정갈하고, 어떤 책장은 대중없으며, 어떤 책장은 위트로 넘친다. 심지어 어떤 책장의 주인은 책에다 읽는 사람들이 메모를 남겼으면 좋겠다고 한다.

분양하는 책장 반대편에는 독립서점 어부(語夫)들이 있다. 고기 여자가 아니라 말씀 여자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책이 있는 생각의 바다에서 말을 길어 올리고 되새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겠다. 책의 색선도 어중으로 구성된다. 삶의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철학 등의 책은 고등어(高等語), 예로스와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빨간책은 홍어(紅語), 옛 사람의 지혜를 담은 고전들은 송어(崇語) 등등. 책이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싱싱하게 삶에 다양한 화두와 자극을 던지는 매개체로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가치와 태도를 위트 있게 풀어내고자 했다. 이 독립서점은 잘 나가는 책들, 많은 책들을 소개하는 장소가 아니라 각각의 어중에 어울리는 책 100권 정도만 계절별로 엄선해서 소개할 예정이다.

공유책장과 독립서점뿐 아니라 지역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나누는 동아리나 커뮤니티들과 함께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출판워크숍도 진행한다. 분양받은 책장의 주인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책장 분양의 스토리를 모아 팟캐스트와 한 권의 책으로 만들 예정이기도 하다.

#살롱: 커뮤니티에서 발산되는 문화적 힘

생각하는 바다는 공유책장과 독립서점 어부들을 양편으로 두고 35평가량의 홀이 있다. 이 홀은 20~30명 정도가 편안하게 앉아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모임을 가질 수 있고 강좌, 포럼, 세미나 등도 진행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파티의 경우 50명 이상이 즐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다.

이 홀은 낮에는 커피와 맥주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이자 서점으로 운영된다. 밤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살롱을 위해 비워두었다. 생각하는 바다에서 기획하는 독서, 글쓰기, 사람책 등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다양한 모임과 교류를 가꾸어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대관한다. 공식적인 대관 규정이 있지만 소소하고 즐거운 커뮤니티의 실험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50% 할인 정책을 시행한다. 오픈과 더불어 열었던 라이프러리 북페어에 이어 독서나 글쓰기모임, 출판기념회 등이 열렸으며, 한 해를 한 권의 책과 글로 마무리하는 개인들의 북토크쇼와 버라이어티한 이십대를 마무리하는 액션파티 '아홉수 파티'도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2019년에는 책뿐 아니라 영화, 팟캐스트, 유튜브, 음악, 수화, 육아 등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책을 읽는 속도로 세상을 돌아보기도 하고, 매력적인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에너지와 발상을 나누고 응원하는 살롱으로 가꾸어 가고자 한다. 책, 커피, 맥주, 무대와 음악, 노래방기계 같은 것들은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어울리는 살롱을 위해 준비한 양념들이다. 커뮤니티는 자발적이며, 유연하고, 즐겁다.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그런 커뮤니티들이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살롱이 얼마나 많은지가 지역문화의 힘을 가능해보는 척도일 것이다. 살롱이 귀한 부산에서 생각하는 바다를 다양한 커뮤니티의 온상(?)인 살롱으로 가꾸어 가고자 한다.

#CO-OFFICE

생각하는 바다 공간 안쪽에는 호밀밭출판사와 두두출판사, 디자인스튜디오 스토리머지가 입주해있다. 또 청년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부산청년들의 사무실도 있다. 홀을 중심으로 책과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는 살롱으로 운영하면서 공간 안쪽에는 지역에서 각자의 콘텐츠나 담론을 만들고 있는 주체들이 입주해 상생을 도모한다. 지역 주체들이 지속성과 현실적인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초기 비용과 운영 노하우, 판로 개척이나 출구 전략 등을 개별 단체가 추진하기에는 어려모로 벽찬 경우가 많다. 생각하는 바다는 이런 어려움을 물리적인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공동의 브랜드 전략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는 공유 오피스이기도 하다. 출판, 디자인, 서점, 사진과 영상 등 서로 거래 가능한 품목을 지닌 주체들 간의 거래 활성화로 각 단체의 지속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입주 단체 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프로그램의 기획, 아트 상품이나 콘텐츠 기획을 위해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공유책장과 독립서점 어부들이 있는 북카페, 다양한 커뮤니티로 지역을 생기 있게 만드는 문화 살롱.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상생을 도모하는 공유 오피스. 준비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즐기거나 응원해주셔도 좋고, 생각하는 바다에 또 다른 생각을 더해주시어도 좋겠다.

고령화사회에 미치는 문화예술의 역할

글 박응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부장



삶에 대한 화해와 정체성 확립: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길을 걷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동, 청소년보다 노인들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노인' 혹은 '나이듦'의 이미지는 노쇠하거나 무기력해서 보호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서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꽃보다 할배' 방송에서처럼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인 존재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다. 산업화의 촉진과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노인의 역할과 지위가 바뀌게 되면서 오늘날 개인은 '노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선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박응희, 2009). 다시 말해 노년기가 부모로서의 책임과 노동시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전 생애에 걸친 삶의 흔적과 업적을 되돌아보는 시기로서, 계속해서 성장과 학습 그리고 새로운 탐험을 할 수 있는 시기임이 재발견된 것이다(Giddens, 2003). 노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는 전환학습(Umlernen)과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가는 새로운 학습(Neulernen)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박응희,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다원화되는 생활양식과 생물학적 변화 속에서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구현하는 동시에 지역과 사회의 창조적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문화예술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박응희 외, 2011). 노인 문화예술교육은 노인들에게 자신들이 살아온 과거와 화해하도록 도와주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삶에 대한 희망을 재구성하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박응희·이병준, 2009).

노인 문화예술교육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는 도구적인 수단이 아닌, 노인들의 '일상' 속에서 생애사적 성찰, 사회적 지지와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변화에 대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박응희 외, 2011). 문화예술활동이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와 자아정체감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천하고 있는 독일과 미국의 노인문화예술교육단체를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 쿠비아(Kubia: Kompetenzzentrum für kulturelle Bildung im Alter und Inklusion 노년기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역량센터)

'쿠비아'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렘사이트(Remscheid)의 아비케이(itk: Das Institut für Bildung und Kultur e.V. 문화교육을 위한 교육 및 문화 연구소)에 의해 2008년 설립된 기관이다.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문화예술이 세대 간 소통과 노년기의 잠재력 및 기회 제공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조사연구와 사업을 위해 노년기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역량센터인 '쿠비아'를 별도로 만들게 되었다.

'쿠비아'는 문화예술교육, 노년기의 문화예술교육,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노인시설에서의 예술활동 및 문화예술교육, 이주민과의 문화예술활동,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노인연극에 관한 연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쿠비아의 대표 프로그램인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활동(Generationen)', '문화예술의 돌봄활동(Pflegekunst)', '인클루시온(Inklusion)', '국제활동', '황금연극(Theatergold)'을 소개하고자 한다.

'세대 간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활동(Generationen)'에서는 노인들이 손·자녀 및 자라나는 젊은 세대와 함께 하는 무용, 미디어, 미술 등 여러 영역의 문화예술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의 돌봄활동(Pflegekunst)'은 노인시설의 거주자, 이동성의 제한을 받는 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초고령층 등을 위해 문화에

술활동을 제공해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함께 노인들에게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해 줌으로써 건강과 노인의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인클루시온(Inklusion)’에서는 문화예술프로젝트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노인들의 관심, 잠재력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준다. 문화예술활동을 공유하면서 노인들은 장애와 약점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즉, 노인들은 자신들의 생활, 즉 보고, 듣고, 이해하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들이 사회생활과 문화예술적 생활에 속하는 것임을 알고 자신의 잠재력을 키워나간다.

‘국제활동’은 인구통계학적 변화 속에서 유럽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시니어 창의성을 위한 국제문화활동 등 창의적인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황금연극(Theatergold)’은 노인연극 포럼으로서 현재 노르드라인 베스트팔렌 주에는 80여 개의 노인연극극단이 활동 중이다. ‘쿠비아’는 노인연극 상영, 질적 향상, 네트워크 지원과 발표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연극에 필요한 내용들을 교육과정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 ‘라이프타임 아트(Lifetime Arts)’와 ‘노인이 나누는 예술(Elder Shares The Arts)’

‘라이프타임 아트’는 뉴욕 뉴 로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노인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이다. 노년층이 전문적이고 질 높은 예술 프로그램 및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들이 적합한 노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Creative Aging programs)을 설계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고객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라이프타임 아트’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라이프타임 아트 공립도서관 이니셔티브(Lifetime Arts’ Public Libraries Initiative)’, ‘커뮤니티 레지던시(Community Residencies)’, ‘트레이닝 인스티튜트 워크숍(Training Institute Workshop)’ 등이 있다. 도서관을 어르신들의 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2008년부터 ‘라이프타임 아트 공공도서관 이니셔티브(Lifetime Arts’ Public Libraries Initiative)’를 시행해오고 있다. 도서관을 예술 활동 공간으로 이용한다는 점이 기존의 노인 문화예술교육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이 지속적으로 지적·창조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커뮤니티 레지던시(Community Residencies)’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뉴 로셸 지역의 노인들은 고등교육기관 수준의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무용, 음악, 미술, 문학예술, 극장예술 분야의 전문 예술강사들을 통해 실험적인 작업 방식을 경험하게 된다. ‘커뮤니티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레지던스가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의 장이 되어 노년층의 소외감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트레이닝 인스티튜트 워크숍(Training Institute Workshop)’을 통해 뉴욕 전 지역의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노인 문화예술교육 예술가들의 역량개발도 함께 하고 있다.

‘노인이 나누는 예술(Elder Shares The Arts)’은 노인을 수동적인 보살핌의 존재가 아닌, 예술 활동을 통해 지립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장려하는 뉴욕 브룩클린에 위치한 비영리단체이다. ‘노인이 나누는 예술’의 주요 프로그램들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공통된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로 가족, 집, 삶의 교훈, 터닝 포인트, 사랑, 직업 등의 개인 인생사 관련 테마가 스토리텔링의 주제로 구성되고, 지역사회의

전통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한다. 어르신들은 듣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표현 방식을 고민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술 효과를 경험한다. ‘노인이 나누는 예술’의 주요 프로그램들로는 ‘라이프 콜라주(Life Collage)’, ‘가치 있는 글쓰기(Get Your Word Worth)’, ‘히스토리 어라이브(History Alive)’ 등이 있다.

그룹별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라이프 콜라주(Life Collage)’에서는 각자의 인생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누구든지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다. 다양각색의 추억들과 인생경험은 다시 그림 그리기, 판화 제작하기, 가면 만들기 등의 예술작품으로 변형되어 탄생한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작품 활동을 통해서 예술적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라이프 콜라주’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작품을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그들의 창의적인 목소리를 공유한다. 특히 2008년과 2009년에는 맨해튼 소재의 20개 노인센터와 협력하여 ‘집으로 가는 먼 길(A long Way Home)’을 주제로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과 성 베드로 교회(Saint Peter’s Church)에서 특별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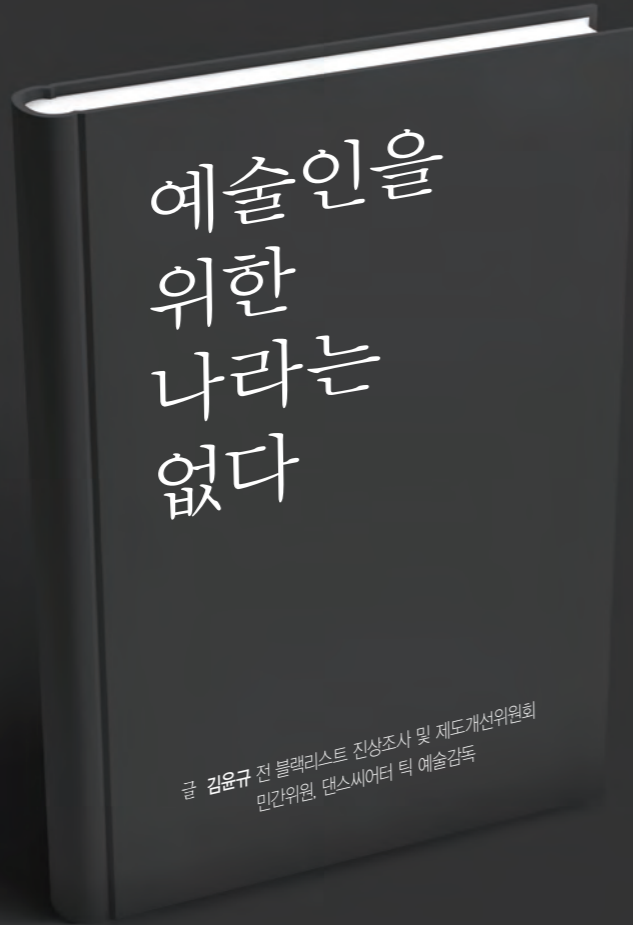
‘라이프 콜라주’가 대화 형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가치 있는 글쓰기(Get Your Word Worth)’는 어르신들의 글쓰기로 스토리텔링이 이뤄진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아마추어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블로그 ‘워즈워스(Wordsworth)’를 운영하여 그들의 글을 게재하고, 매년 아마추어 작가가 직접 작품을 낭독하는 이벤트를 열어 지역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히스토리 어라이브(History Alive)’는 노인 세대의 이야기를 청소년 및 젊은 세대에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뉴욕의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세대통합 예술(Intergenerational Arts)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교육기관과 노인 복지기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스토리텔링과 접목된 공연예술, 시각예술, 작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작업이 진행된다. 청소년들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로 나아간다.

뉴욕 주 교육부는 ‘뉴욕 주 교육 표준(New York State’s Learning Standards)’이라는 가이드를 제시하여 뉴욕 공립학교의 학생들이 분야별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히스토리 어라이브’는 뉴욕 주 교육 표준의 예술교육지침을 따르고 있어 학생들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는 한편, 학생과 노인 모두가 지역사회 예술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문경(2015). 인생을 나누는 예술. 미국 노인문화예술교육사례. 아르아르페 리포트, 해외리포트. (<http://www.arte365.kr/?p=46106/>)
 박응희(2016). 노인문화예술교육의 평생교육학적 성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1권 4호, p.47-62.
 박응희·한현우·정미경·이병준(2011). 대도시 노인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현황분석. -부산광역시 노인교실과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6권 1호, p.125-149.
 박응희(2009). 노인교육 시장분석을 위한 노인학습자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5권 3호, p.137-158.
 박응희·이병준(2009). 노인교육 담론에 대한 교육학적 탐구. 교육의 이론과 실천. 14권(1), p.21-38.
 Kade, S.(2007). Altern und Bildung. Eine Einführung. Bielefeld: Bertelsmann.
 Giddens, A. 김미숙 외 역(2003). 현대사회학. 4판. 서울: 을유문화사
<https://fbk-kultur.de/de/ueber-uns.html> (2018.12.9.)
<https://fbk-kubia.de/> (2018.12.9.)



지난 2016년 겨울, 문화예술인들은 국가의 예술인 검열사태를 규탄하며 촛불시인과 함께 항쟁으로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국정 최우선 과제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이듬해 2017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도종환 장관과 김학철(미술기)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설치되었고 영화, 연극, 문학, 평론, 미술, 전통예술 등 각 장르의 민간위원으로 꾸려진 진상조사위의 무용분야 민간위원으로 함께했다.

끝나지 않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임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한시적인 장관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수사권이 없었고, 그러한 권한에서의 한계와 방대한 사건에 비해 부족한 조사인력 및 기간 등의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전문조사위원들은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휴일도 잊은 채 노력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범죄에 관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131명(수사의뢰 26명, 징계 105명)에 대한 책임규명을 정부와 문체부에 엄중 권고했다.

그렇게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여기며 최종권고안 발표와 함께 2018년 6월 30일 11개월간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마감하고 해산하였다. 그리고 2개월이 조금 더 지난 2018년 9월 13일, 문체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한 이행계획'을 언론을 통한 통보로 접하게 되었다.

법리를 따져 심사숙고했다는 결론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으며, 하위직에는 상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체부의 책임규명 이행계획안이었다. 결론만 있을 뿐 어떤 법리적 해석이나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그야말로 징계 0명에 셉프면책과 다름없는 전형적인 관료의 비검함과 구태를 보여주는 발표였다. 위원으로 활동하는 내내 불같은 예감이 있었으나 그보다 이 정부와 문체부의 개혁과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이 커서인지 애써 외면하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공동위원장이었던 장관은 장관 이전에 그 또한 블랙리스트 중의 한 사람이었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진상규명과 문화예술 적폐청산과 개혁의 책임자일 것이라 우리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관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설치되던 날 이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 피해자라도, 공동위원장으로, 문체부장관으로도 더 이상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더구나 조사결과 발표 때도 위원회의 해단식에서조차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니 불같은 예감을 넘어 불쾌감까지 느꼈다.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징후도 있었다. 국정 최우선 과제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활동기간 중반 이후부터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밤낮 없는 회의와 조사활동에도 회의비는 물론 밥값조차 각자 해결해야 했다. 그럼에도 애써 부정하고 싶었던 불같은 예감을 위원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불과 두 달 만에 현실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미 임기는 다했으나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으로서 문체부가 내놓은 결과 앞에 좌절감과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을 시작으로 문학, 음악, 연극, 무용을 비롯한 각 장르의 문화예술협단체들은 문체부의 책임이행계획에 대한 분노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들은 추석연휴 서울역과 버스터미널에서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그리고 광화문, 문체부, 국회, 청와대에서 문화예술인들의 1인 시위가 연일 이어졌으며, 각자 준비한 항의 피켓의 내용은 이미 문체부를 넘어 국회와 정부를 향한 분노로 확대되어 있었다.

축제처럼 함께, 블랙리스트 대항진

지난 2016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퇴진을 위한 문화예술인 7,000인 선언' 2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 13일, 문화예술인들은 '적폐청산!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2018 문화예술인 선언>과 <블랙리스트-블랙리스트 대항진>을 열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의 기자회견과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삼두매를 선두로 블랙리스트를 상징하는 검정 깃발과 대형 촛불 그리고 참가자와 단체들이 준비한 다양한 소품들과 함께 문화예술인들의 축제처럼 진행되었다.



〈블랙리스트-블랙리스트 대행진〉은 행진 곳곳에서의 향의 퍼포먼스도 있었다. 30여 명의 무용인이 참여한 집단 퍼포먼스 〈블랙리스트-데이〉는 대형 검은 천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인들의 분노와 요구를 저항의 몸짓으로 담아냈고, 적폐청산과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문화예술인의 하나 된 목소리는 청와대 앞 행진의 마무리 지점에서 그 절정을 이뤘다.

우리는 그렇게 행진 내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깃발을 휘두르며 저항의 몸짓으로 장관을 이뤘고, 청와대를 마주한 늦은 저녁의 청운동 골목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로운 예술인임을 더욱 소리 높여 외쳤다. 〈문화예술인 대행진 선언〉에는 131개 문화예술단체와 2,166명의 개인이 연서명으로 참여했고, 이날 이후 문체부는 발표했던 책임 이행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기록하고 잊지 말아야 할, 주권자에 대한 야만적 국가 폭력

한 해 총수입이 500만 원도 안 되는 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로 검열과 탄압을 받아야 했다. 정치인 지지선언, 용산 참사 서명, 4대강 반대 서명, 5.18민중항쟁 관련 작품 제작,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강경 해군기지 건설 반대, 해고 노동자와 연대, 세월호 관련 연극과 영화를 제작했다고 블랙리스트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2,700여 건의 국가 지원 배제 및 탄압이 자행되었다. 심지어 심의와 선정발표가 끝난 사업에 블랙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사업 자체를 없애버린 경우도 있었다.

국가정보원은 한국문화작가회의, 리얼리스트100, 민예총, 문화연대, 우리만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16개 단체를 중점관리단체로 기록하고 있었고, 249명의 문화예술인들을 중점관리명단으로 관리했으며,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2,200명의 영화인 블랙리스트 명단이 발견되었다.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9,487명의 명단이 발견되었으며, 이 명단은 문체부 각 과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교육진흥원, 국립극단,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센터, 콘텐츠진흥원, 출판문화진흥원 등에 하달되었고 실행되지 않은 기관이 없었다. 블랙리스트는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공적(公的) 수단과 강요·회유 등의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는 등의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위로, 문화예술인의 표현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반헌법적 국가범죄다.

그 피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당한 문화예술인은 물론 민주사회의 시민 모두에 해당되며, 이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야만이자 폭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그 죄책을 피하려 하는 국가와 관료의 태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이며,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반면 전대미문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돌아보아야 한다. 민주국가의 시민이자 예술인으로서 기본권인 표현과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당한 오늘, 우리 또한 헌법적 죄책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죄’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현재 우리의 존재의식과 자의식을 결정한다고 한다.

예술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과거는 되풀이된다.

누구와 견주어도 당당한,
그러나 아직 한참 목마른 장애인예술인

글 전용미 드림꿈센터 대표, 문화예술기획자 및 교육강사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 장애인이다. 세계적으로 장애인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국가별로 전체 인구수 대비 5~2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태어나면서 가지는 선천적 장애보다 사고나 질병으로 생기는 후천적 장애의 비중이 더 크다. 모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느 강연자의 말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장애인은 어느 외계의 별에서 온 외계인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신기한 생물체를 보듯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말아주십시오.”



그는 31세에 자전거 사고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다.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시선이었다고 한다. 비장애인들이 무심코 던진 눈빛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던 걸까?



장애 여부로 차별되는 예술적 성취

드림꿈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볼 수가 있었다. 2008년부터 장애 아동·청소년·청장년·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애가 있는 대상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알게 된 것은 장애로 인한 기능적 불편함은 있으나 예술적 능력의 부족함은 없다는 것이다. 누구와 견주어도 당당한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의 사회문화가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해 차별적 편견을 가지고 있어 그 진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예술적 잠재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은 물론, 창작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적·물적 환경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

일요일 늦은 오후 ‘한성1918’ 음악실. 음악을 사랑하고 도전을 즐기는 밴드 ‘터닝포인트’ 멤버들이 모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한 주 준비를 위해 개인의 공간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을 시간에 터닝포인트 멤버들은 함께 모여 음악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중이었다. 밴드 터닝포인트는 ‘2018년 부산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찾아낸 시각장애예술인 동아리이다.

일시 : 2019. 1. 13. 16:00~18:00 장소 : 한성1918 음악실 인터뷰어 : 전용미 인터뷰이 : 터닝포인트

'터닝포인트'라는 밴드는 어떤 밴드이고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었나요?

맹야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어요. 입학식 행사로 학생들이 리코더 연주를 했는데 문득 '좀 더 다양한 악기로 밴드를 만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무슨 밴드냐며 주변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 오기가 생기더군요. 기필코 밴드를 만들어 무대 위에 서보리라 마음을 먹었죠.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모아 각자 집에 있는 악기를 가지고 와서는 스쿨밴드를 만들었어요. 시작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밴드 활동을 하면서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공연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하지 않고 나가요. 멤버는 드럼, 기타, 보컬 등 총 여섯 명인데 모두가 시각장애인은 아니고요. 랩 보컬을 하는 예진 씨는 비장애인이에요. 대개 장애인 예술동아리들은 장애인만 회원인 경우가 많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콜라보 동아리라는 점이 우리 밴드의 특색인 것 같아요. 나이는 20대부터 40대까지 있지만 나이를 의식하지 못할 만큼 잘 통해요.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 네다섯 시간씩 새로운 곡들을 준비하여 연습하고 있어요.

밴드 이름을 '터닝포인트'라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점도 기회도 있잖아요.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음악은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음악이 누군가에게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했어요.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 중 음악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음악을 선택했다기보다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 음악이 늘 옆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음악에 스며들게 된 거죠. 음악

만한 위안과 위로가 없었고 음악은 또 다른 '나'이고 전부예요.

새로운 곡을 연주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연습하나요? 점자로 된 악보가 있는지 궁금해요.

점자로 된 악보는 없어요. 각자 자기 파트를 유튜브를 통해 익혀 와서 같이 조율을 해요. 한 번 들으면 웬만한 음들은 따라 할 수 있어 악보 없이도 연습이 가능해요. 우리들의 강점이죠. 절대음감이거나 할까...(하하하)

밴드 활동을 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 보람된 일들이 많았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멤버 6명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다 달라요. 자신만의 색깔들도 강하고... 엔딩 한 마디를 가지고 두세 시간은 기본이고 밤을 새우는 일들이 많았어요. 모두의 입에서 '좋았어'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집엘 가지 않았어요. 손가락에 마비가 오고 어깨에 경련이 일어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 노력이 무대 위에서 고스란히 보여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력을 동정심 유발 목적으로 전락시킬 때 가장 힘들었어요. 장애인들이 하는 밴드이니 잘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멘트가 우리를 슬프게 만들더군요. 공연자와 관객은 함께 음악을 즐기는 동등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선을 긋고서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최선을 다해 공연을 마무리하는 순간 아낌없이 쏟아지는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에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 그 희열과 행복은 잊을 수가 없어요.

밴드 활동 전과 후의 개인적인 변화가 생겼나요?

나이가 들면서 내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하는 일상들이 불



편해지기 시작했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면 스스로 위축이 되어 갔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밴드에 들어오는 것도 많이 망설였어요. 밴드에 들어와 첫 무대를 서기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엄청 했어요. 밴드 형·누나의 응원과 격려와 지지로 무대에 섰는데 하나씩 되더라구요. 지금은 세상 별것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아졌어요. 특히 무대 위에 있을 때는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들어 너무 행복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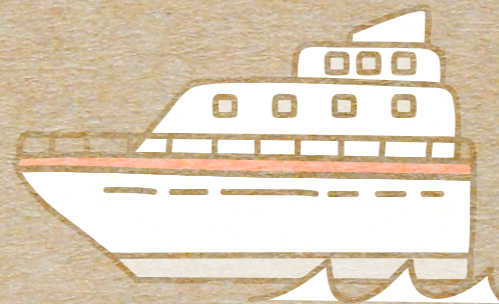
앞으로 밴드의 계획 또는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작년까지 맹야학교에서 연습장소를 지원해주어 밴드 활동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현재 학교 사정상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오늘은 한성1918 음악실을 지원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공적인 공간이라 저희들만 사용할 수가 없어 이곳저곳 찾아 옮겨 다녀야 해요. 갈 곳만 있어도 다행인데 갈 곳이 여의치 않아요. 우리들의 연습장소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지금까지는 관객들을 위해 대중음악을 했는데 앞으로는 대중과 사회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 공연을 하고 싶은 게 두 번째 목표예요. 밴드의 특성상 여러 장비들이 필요한데 공연을 해 달라 요청이 와도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올해는 더 많은 공연을 해서 사람들에게 밴드를 알리는 것이 세 번째 목표, 마지막으로 해외공연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목표예요. 이렇게 하려면 올 한 해 열심히 뛰어야겠죠

모두를 위한 장애문화예술이 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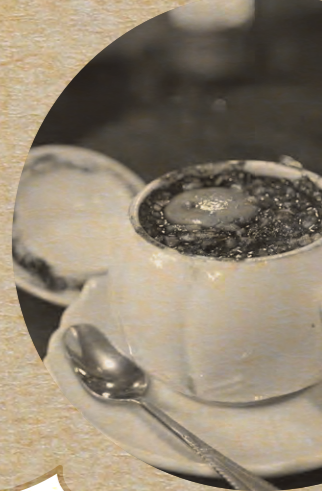
부산문화재단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장애예술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부산지역 장애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은 300명에 이르며, 14개 예술영역에 10대부터 70대까지 있었다. 장애예술인의 주된 예술영역은 음악 29.4%, 공예 17.3%, 사진 11.8%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 기간은 1~5년 미만인 56.0%, 5~10년 미만인 25.4%, 30년 이상은 3.4%나 있었다. 오랜 기간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문화예술 활동의 발표 횟수는 1~5회는 48.0%, '한 번도 없다'가 24.5%나 되었다. 이는 자신의 문화예술 활동이 사회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고 행복하지만, 예술적·경제적 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말한다. 장애예술인들이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연습공간과 창작공간의 확보, 사회적 인식 제고, 공연을 위한 스태프와 봉사자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고, 부산시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 예술인에 의한 장애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분석결과에 나왔다. 따라서 부산시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모두를 위한 장애문화예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공감 Review



032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데이, 무엇을 위한 공감인가?
- 김이해 이음영화제 청소년 프로그래머

038 나는 왜 <도시재생을 넘어 문화예술이 있는 삶으로>를 투고했는가?
- 정두순 경성대학교 무용학과·글로벌문화학부 외래교수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데이, 무엇을 위한 공감인가?

글 김이해 이음영화제 청소년 프로그래머

불평등한
세상에서,
올해도
수고했어.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데이〉는 사회적 소수자 문화 증진을 위해 개최된 문화다양성 행사 주간이다. 설명만 들어서는 지루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처음 '문화다양성'에 대해 접했던 것은 우연히 지나친 고등학교 학내 게시판에 붙어있던 행사 포스터를 통해서였다. 당시 첫 인상만 해도 그저 재미없는 기관 행사들과 별 다를 바 없었다. 그때 처음 그런 의문이 들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성공여부조차 알 수 없는 일에 쏟아 붓고 있을까? 포스터에 써진 작은 이름들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행사들을 필사적으로 지켜내려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 작은 의문 하나에서 시작해 연이 닿은 뒤로, 2년을 청소년 프로그래머로 〈이음영화제〉에서 함께하게 되었다. 타인으로 서 그저 물끄러미 지켜보던 내가 어느새 '지켜나가는 사람들'로서 함께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그 가치들을 위해,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데이의 행사를 하나씩 들여다보려고 한다.



우리의 존재를 '이음'영화제

이음영화제는 3년 전부터 부산에서 사라져가는, 잊힌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제다. 올해는 총 여섯 팀이 참여해 북한문화, 쿼어, 여성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취업준비생, 장애인 인권 등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영화를 통해 풀어냈다. 프로그래머들은 대부분 영화 전문가가 아닌 기존에 인권운동을 하던 당사자들로, 영화제를 처음 기획해보는 활동가들도 많았다. 나 또한 처음 이음영화제에 참여했을 때는 그저 영화를 취미로만 즐기는 청소년이었다.

영화제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는 간단했다. 왜 청소년이 만드는 청소년 영화제는 없을까? 당사자가 배제된 문화 행사가 정말 제대로 된 문화 행사라고 할 수 있나? 영화의 도시라는 부산에서는 한 해에도 수많은 영화 관련 행사들이 열린다. 그중에는 당연히 어린이·청소년을 주제로 한 영화제도 존재한다. 그러나 행사 당일 둘러본 현장 어디에도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프로그래머-스태프는 없었다. 그해 여름 영화제를 함께 해보자는 제의가 들어왔을 때, 나는 무엇보다 '나의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래머를 맡았던 여성청소년영화제

의 제목은 〈02년생 김지영〉이다. 30대 여성의 삶을 그린 〈82년생 김지영〉을 패러디한 것이 맞다. 02년생 김지영의 메인 주제는 '여성청소년의 삶' 그 자체로, 그동안 미디어 속에서 항상 타자로 존재해왔던 여성청소년이라는 존재를 당사자의 시각에서 풀어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피의 연대기〉, 〈당갈〉 등의 장편과 함께 단편 섹션의 이름을 〈소녀 히어로즈〉로 지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히어로로 꿈꿔 보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 가졌던 소망 아닌가.

영화제를 관람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작품은 장애인 인권 영화제의 폐막작이었다. 폐막작 〈버스를 타자〉는 2002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운동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어제 학교 가는 길에도 무심코 타고 올라갔던 그 엘리베이터가 누군가의 뜨거운 투쟁의 결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경찰들의 연행 방식이라든가, 일방적이기 그지없는 지자체와 정부의 태도, 영화 곳곳에서 드러나는 장애인 활동가들에 대한 폭력이 과연 지금은 바뀌었나 하는 의문도 남았다.

아직도 누군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75m 높이의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아직도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차별적인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2002년 세



살이었던 내가 열아홉이 된 지금도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그 모든 저항의 결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사회운동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이, 기록을 함께 보고 나누는 행위들이, 시간을 내어 행사에 참여하는 발걸음들이, 우리의 존재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아닐까.

연대가 있는 연말, 젠더파티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데이〉 행사 중 가장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 '젠더파티'다.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담당자도, 스태프도 아닌 그저 참여자 개인으로 갈 수 있는 행사가 조금은 그리웠기 때문이다. 나쁜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했던 많은 활동가들 또한 그런 마음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연초부터 연말이 터져 나왔던 'Me Too'와 지방선거 시기 치열했던 청소년 참정권 쟁취 운동, 6차까지 이어진 부산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 해화역 시위와 각 지역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는 2018년이 수많은 소

수자들의 목소리로 가득한 해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 해를 치열하게 보낸 우리들에게는 서로를 위로하고 연대의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다. 젠더파티는 사사로운 폭력에 대응하는 연대 부흥회, 여성주의 간증 페인팅, 흑역사 청산 타로 부스 등 알찬 프로그램들 속에 시작되었다. 흑역사 청산 타로 부스는 어쩌나 인기가 많은지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기번호가 20번을 넘어가고 있었을 정도다. 가장 흥미로운 콘셉트의 프로그램은 '여성주의 간증 페인팅'이었는데, 여성주의를 처음 접하고 나서 생긴 삶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지인의 손에 이끌려 참여하게 된 나 또한 나의 지난 여성주의 운동을 되돌아보며, 울고 웃었던 그 날의 기억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매일

참여하지 않았지만 관심이 가는 행사도 있었다. 비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의 환경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는 '어둠속의 하루'라는 행사인데, 장애



한 해를 치열하게 보낸 우리들에게는 서로를 위로하고 연대의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다.



를 '체험'해본다는 발상에 대한 비판에 어느 정도 공감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내용의 행사를 준비한 것인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장애 체험 프로그램은 신체장애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 중심적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어둠속의 하루'는 단순히 안대 쓰고 걷기, 휠체어 사용해보기 등의 신체장애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배리어프리 영화와 공연 라이브를 함께 감상해보는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 시스템 발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또한 함께 준비되어 있었다. 행사를 준비한 활동가들의 고민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체험 프로그램의 한계는 명확하다. 장애인을 '타자'로 규정짓고 불편을 '이해'한다는 일방적인 구도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 체험은 많은 지역에서 장애인권 교육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관련된 비판을 조금 더 수용하고 반영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는 '어둠속 하루'가 아닌, '당연한 매일'을 살아가는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아직도 한 달에 제대로 된 외출 한 번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수두룩한 사회에서, 이 시점에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일 아닐까.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를 위한 공감

준비 과정에서의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 아쉬움들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사가 큰 탈 없이 무사히 치러졌다. <문화다양성 네트워크 데이>는 조금은 어설피고, 마냥 멋있거나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들의 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사람들의 시간과 손길이 모여 만들어진 행사다.

어디에선가 이 글을 읽고 있을지도 모르는 당신에게, 내년에는 함께하자고 말하고 싶다. 함께 손잡고 당신의 이야기를 외쳐보자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을 위해서 말이다.

나는 왜 부산문화재단 문화정책논문공모대회에

<도시재생을 넘어 문화예술이 있는 삶으로>를 투고했는가?

글 정두순 경성대학교 무용학과·글로벌문화학부 외래교수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관을 바꾸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경관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강제하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터에서 나날의 삶을
하나의 작품으로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기술(art)이어야 한다.



반송과 나

나는 1971년생이고, 반송 출신이다. 반송은 예나 지금이나 낙후된 동네로 불린다. 철이 들 무렵부터 난 반송에 산다는 사실이 너무도 부끄러웠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큼이나 될까 하는 물음에 엄청 크다 정도로만 답할 줄 알았던 어린 시절, 반송은 내게 있어 우주였다. 나의 집 앞 골목은 하루 온종일을 뛰어 다녀도 끝나지 않을 듯 펼쳐진 대지였고, 놀다 지쳐 파김치가 될 때까지 별약별 놀이를 생산하게 하는 창조적 공간이었다. 여름마다 골목에 늘어선 평상과 돛 자리는 집과 집, 담과 담의 경계를 허물고 마당과 마당을 이으며 나의 일상을 여행으로 이끌어 주었고, 별, 달, 바람, 냄새 그리고 끊이지 않는 정겨운 수다는 나에게 평온한 자장가가 되어 주었다.

언제부터인가 함께 골목을 뛰어 놀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000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다. 엄마, 아빠도 덩달아 고민하는 눈치였다. 그땐 몰랐다. 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 그러나 지금은 안다. 고민을 끝내지 못한 엄마는 아빠를 여의고 홀로 반송에 남아, 그곳을 떠나는 이를 배웅하고 오는 이는 마중하며 반송도 집값이 오를 날이 있으리라 꿈꾸며, 노년을 보내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어느새 성장감 속 짙은 성냄마냥 변해버린 그곳을 열린 후회를 안은 채 여전히 지키고 있다.

대학시절 술 마시느라 놓친 마지막 버스 대신 택시를 탈라 치면 요금의 두 배를 준다 해야 겨우 탑승이 가능했기에 가난한 나로서는 학교 잔디밭에서 자기 일쑤였다. 택시기사에게 반송은 손사래로 되돌아오는, 재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때부터였을까? '반송에 살아요!'라고 말하는 것이 눈치 보이기 시작한 무렵이. 이윽고 내가 사는 반송이 빈자(貧者)의 공간이라는 사실, 내가 빈자의 자식이며 나 또한 빈자라는 진실이 내 온몸을 차갑게 휘감았다. 그것은 냉정 벗어나고 싶은 나의 현실이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서울로 취직을 했다. 그 어렵다는 유니버설발레단에서 무용수로 일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반송 출신이.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이 난 거지. 내 것도 아닌 반송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서울에 집간을 마련한 뒤 나는 서울 시민이 되었다. 서울 시민답게 서울말도 배워 썼다. 가끔 강원도에서 왔다는 물음에 머쓱해지기도 했다. 서울서 사는 동안 반송을, 아니 부산을 내 몸에서 지우려 무던히도 애썼다. 퇴사한 후 퇴직금과 내 것도 아닌 전세 보증금을 들고 프랑스에서 한 2년 쿨바람을 쐬 후, 그렇게 10년을 떠돌다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반송으로 가지는 않았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영영 나오지 못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부곡동, 해운대를 거쳐 지금은 대연동에 산다.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아파트에서 반송 출신인 남편과 10년째 오순도순 둘이서 산다. 얼마 전 신문기사를 통해 반송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아, 반송! 대연동에 살면서 대연혁신도시개발사업의 진행과정과 함께 그곳 주변의 삶이 덩달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직접 목격한 나로서는 만감이 교차하는 소식이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개발 전 내가 수도 없이 거닐며 보았던 주변 경관이 벌써 가물거린다.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니 두고 볼 일이다. 그럼에도 반송의 평화를 기원한다. 아울러 반송에 대한 나의 위험한 노스탤지어는 이제 그만 묻어야 할 것 같다.

왜 나의 아쭈잡은 과거사를 지리하게 먼저 푸는가 하고 반문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내 삶, 내 과거의 자취들은 여전히 내 주변을 맴돌고, 그것들은 현재를 살아내는 나에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관여하며 세상을 뼈뼋게 보는 나의 시각을 형성케 한 까닭에서라고 말하고 싶다.

도시·도시재생을 바라보는 뼈뼋한 시각 하나

도시를 이야기한다는 것, 나아가 도시의 재생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갖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事안)이 아니다. 나와 너의 몸이 있는 그 시공간에 아로새겨진 다양한 층위의 흔적을 삭제하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과거를 부정하며 미래만 향해 내달리는 현재는 결국 미래에 부정될 처지에 놓인 과거의 생산일 뿐이다.

나는 도시와 도시재생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의 몸, 시공간과 함께 뒤엉킨 제각각의 욕망을 온전히 풀어 일으려는 의지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욕망이 경제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것에서 공동체적인 것으로 향하려는 의지와 접촉할 때 비로소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도시는 자본이라는 괴물, 소비라는 괴물의 모체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무관심과 무한경쟁을 부추기며 그것의 치열함조차 속도로 관장하는 도시는 도시민의 일상을 갉아먹으며 오로지 부흥과 발전의 이데올로기를 형상화한 거대한 랜드마크로 자신의 외관을 꾸민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완벽한 코디네이션, 끊임없이 자신을 치장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성형조차 감행하면서 시물라크르(simulacre)로 향한다. 우리의 도시는 지역적 차별을 극대화하는 분리의 테크닉을 은폐, 오히려 그것으로 자신을 미학화, 신화화하며 진화하는 거대 생명체,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곳들은 그저 처방과 치유가 필요한 병적 존재일 뿐이기에, 도시는 이 치유와 처방에 앞장설 주체를 호명하고 그러모은다. 종교적 세례라도 받은 양 도처에서 도시에 대한 찬양을 방언으로 쏟아내는 맹목적 신도가 넘쳐나고, 일명 정치가, 도시계획자, 마을만들기활동가, 문화예술인이라는 완장을 찬 신도들이 자신의 개인적이고도 이기적인 욕망과 분리되지 않은 도시의 호명을 마치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신념인 듯 앞세워 전 국토를 갈아엎는다. 거기에 사람들은 전도되던 전도된 채로, 아니면 아닌 채로 끌려든다. 전국토의 도시화, 도시재생사업에 총력전이 일고 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미 도시의 좀비, 도시재생의 좀비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유혹과 도전

부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정책논문공모>는 부산시민으로서의 나, 부산의 한 촌꾼으로서의 나, 문화연구의 힘으로 내 삶의 모순을 낱알이 파헤치려는 나에게 내 삶의 터전과 내 사람들을 바라보며 쌓아온 그간의 문제의식을 가감 없이 풀어내라는 하나의 유혹처럼 다가왔다.

내 주변에는 꽤나 많은 예술가와 연구자가 있다. 나는 나의 진심을 의심하듯 언제나 그들의 진심을 의심한다. 아니, 진실이라고 말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의심한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다. 자본에서의 탈주를 외치면서 결국 자본의 논리에 포섭되고 마는, 권력에서의 탈주를 주장하면서 결국 권력의 속성에 길들여지고 마는 나약한 우리를 보면서 나는 세상과 관계라는 것에 대해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해갔다.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겐 그것들에 맞설 힘이 미력하나마 남아있다는 치기 어린 주장을 한바탕 지면에다 쏟아내고 나면, 어쩌면 내가 서 있어야 할 곳, 내가 바라보아야 할 곳,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은 쓰는 이, 쓰는 형식, 쓰는 내용에 대한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있다. 문화연구를 하는 나이지만 촌꾼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기에, 내가 선택한 주제 <도시재생>은 어쩌면 도시재생 전문가에게는 주제 넘은 선택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난 내가 선택한 <도시재생>이 학문과 실천을 성역화하면서 입으로만 옹복함을 떠드는 집단에 대한 하나의 도전장이자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도시와 도시재생을 비판하고 또 그것과 관련하여 실천할 권리는 도시전문가 집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사람들, 도시재생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민, 곧 나의 권리, 우리 모두의 권리이기도 한 까닭이다.

위험한 기준

<도시재생을 넘어 문화예술이 있는 삶으로>라는 제목을 정하고 글을 쓰면서 나는 되도록 이론가의 이름을 나열하는 일, 어떤 이론에 매몰되어 그것이 마치 나의 생각인 양 떠벌리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 애썼다. 비록 그 결과가 남들도 다 아는 현상만 비판한 비평문 같다는 쓴소리로 되돌아오긴 했지만, 그것은 이미 각오한 바였다. 왜냐하면 나의 글은 비록 부산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목격한 것에 대한 고민과 그에 따른 비판으로 쓴 것이지만 늘 수정·보완되어야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세상엔 반드시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기준이 너무 많다. 그러한 기준이 우리의 무한한 상상력과 다양성 그리고 차—등(차이와 평등의 변증법)을 삭제하는 장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만하면서 끊임없이 세워지고 있다. 이것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이 무엇이더라는 관료적 기준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도시재생에 이러한 기준이 설정되고 나면 도시와 그 도시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이들이 함께 생성해왔고 또 생성할 다양한 가치는 애당초 말살되고 만다.

지금껏 우리가 보아온 도시재생은 사람들이 만들어왔고 또 만들어갈 도시, 때로는 그 도시에 의해, 때로는 그 도시와 함께 살아왔고 또 살아갈 이들의 삶,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생산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도시 공간과 삶의 장소로서의 도시는 물론 그곳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맺음으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일상을 사는 우리를 부정하고 삭제하는 듯 보인다. 기술관료의 손길을 거친 획일화된 도시와 강제된 도시민의 삶이 도처에 넘쳐난다. 만약 이러한 비판이 일견 타당하고, 그 이유가 일정 부분 그간 도시재생이 세워온 기준 탓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또 다른 상상력, 문화예술적 창조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마땅하다. 바라건대 이 또한 다시금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치는 열린 기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애정의 따지

<도시재생을 넘어 문화예술이 있는 삶으로>는 도시재생을 위한 실천 주제로 나서기보다 그것을 문화예술 콘텐츠로 꾸미는 데 급급하기만 한 부산문화재단, 그것도 모자라 그 콘텐츠를 도시재생사업단의 구미에 당기도록 생산하는 듯 보이는 부산문화재단의 행보에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 던진 쓴 소리가기도 하다.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관을 바꾸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경관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강제하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터에서 나날의 삶을 하나의 작품으로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기술(art)이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재생에 뛰어든 이들의 각기 다른 욕망들은 어떤 곳의 실체를 파악하기도 전에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그 공간을 변형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도시재생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은폐된 조직적 폭력을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

게다가 도시재생을 언급하는 수많은 글에서조차 판매자와 소비자로서의 시선만 있을 뿐 도시와 그 도시민의 삶에 대한 일상생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도시재생은 도시와 사람, 또 그 둘 간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차이 없는 도시만들기, 누군가에게는 생채기를 내는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급기야 공동체를 지향하며 자발적으로 추진되던 마을·주민활동까지 마을만들기라는 국가 정책, 다시 말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섭되어 유사한 마을들이 우후죽순 등장할 형국이다. 누구를 위한 공간의 생산인지 우리는 반드시 반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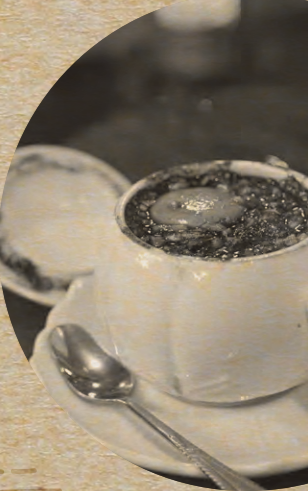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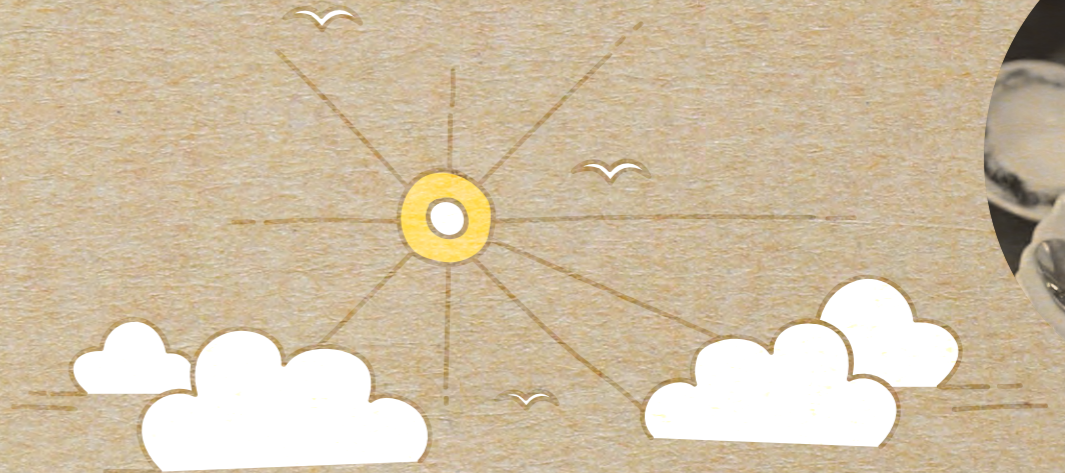
부산문화재단은 이렇듯 주객이 전도된 사업을 추종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다시 전도할 방법을 시민과 연대해 모색함과 동시에 그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실천으로 부산과 부산 사람들의 삶을 작품으로 이끌어 나갈 때임을 자각해야 한다. 끝으로 나의 따지결기, <도시재생을 넘어 문화예술이 있는 삶으로>는 부산시민과 부산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공간 실천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이 실천이 우리 도시가 처한 재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삶의 장소와 그곳 사람들의 일상을 어루만지는 새로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내 간절함의 대신임을 말하고 싶다.

부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임을 잊지 말자. 윤리·문화·예술·철학이 판치는 도시 부산의 사회적 생산을 위한 부산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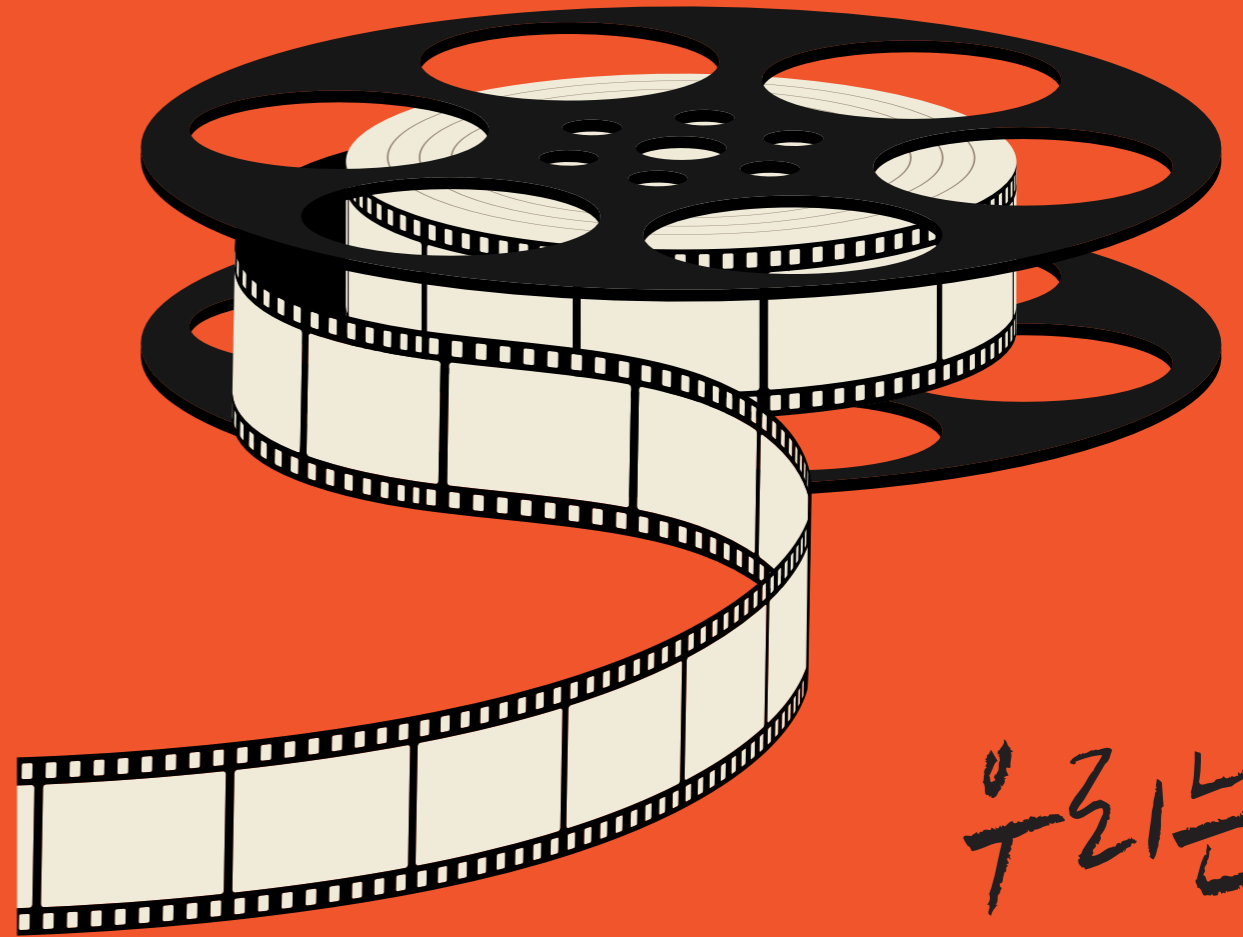
B- side



046 우리는 관객이다
- 정진아 전 국도예술관 프로그래머



내가 원하는 영화를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어떤 영화든
누구나 볼 권리가 있음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우리는
관객이다

글 정진아 전 국도예술관 프로그래머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어제까지도 존재했던 건물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또 어느 순간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는 모습을 흔하게 보게 된다. 공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는 것임을 늘 보아오면서도 우리는 그 변화나 공간에 대해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나에게 직접적인 변화나 자극을 주는 일이 아니면 알아채지 못한다는 게 맞을 것이다. 어쩌면 국도예술관의 존재도 누군가에게는 삶의 큰 의미고 무계였을 테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변화도 자극도 아닌, 존재조차 없었던 사라지는 공간이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볼 권리를 지켜주는 공공재**

국도예술관은 부산 최초의 예술영화전용관으로, 2006년 개관하여 2018년 1월 휴관을 했다. 폐관이라 부르는 이들도 있었지만 휴관이라고 쓰는 것에는 극장의 자의가 아닌 외부 요소에 의한 물리적 휴식이었기에, 극장이라는 공간을 떠나야 하지만 예술영화관의 존재 의미는 공간 외에도 관객이라는 힘이 존재하기에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의미가 깃들어 있었다. 그렇기에 국도예술관이라는 의미는 공간을 넘어 관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부산의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의 볼 권리와 상영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관객의 의지이자 권리를 의미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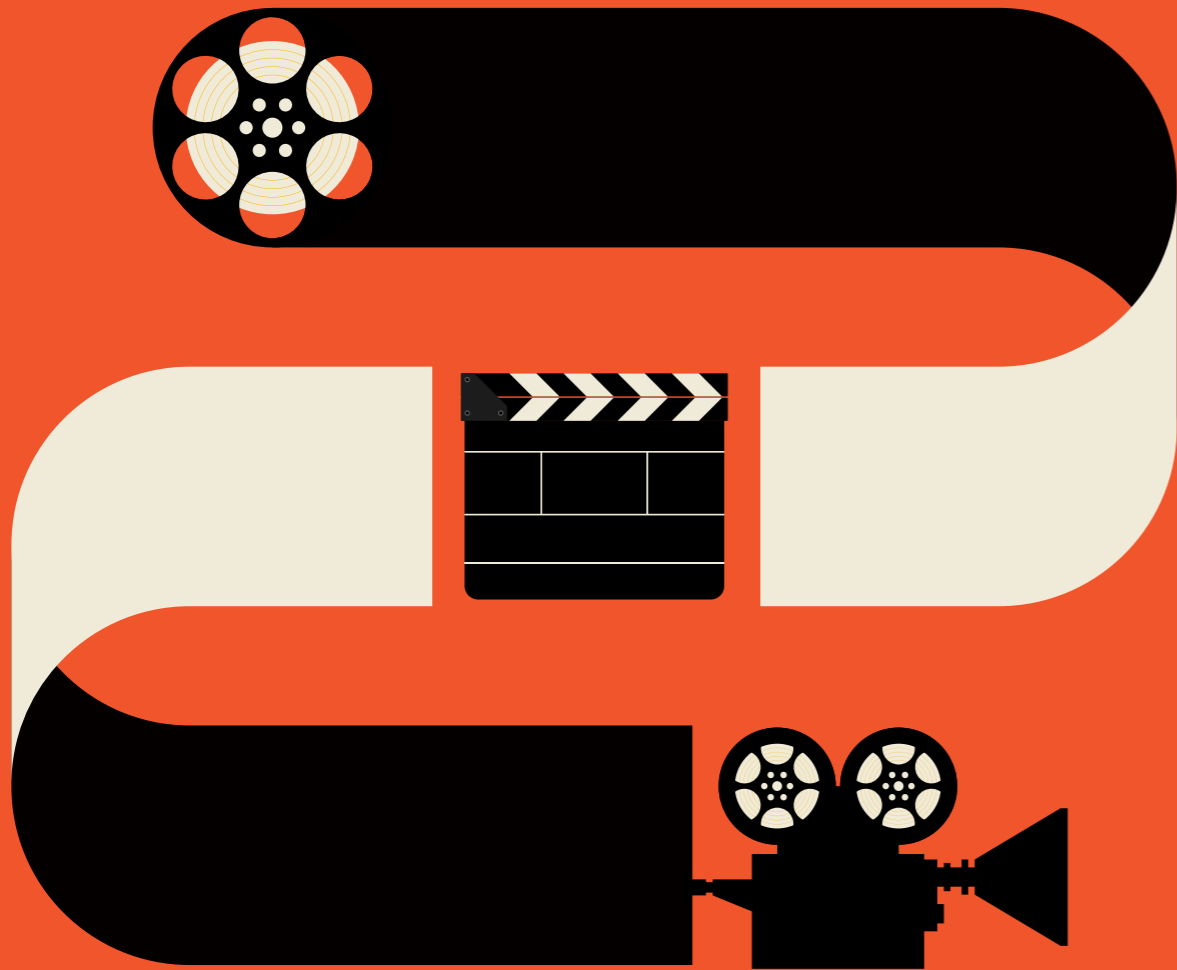
현재 부산에는 예술영화전용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행히 영화의 전당이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있지만 다양한 영화들을 모두 상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외에도 많은 멀티관들이 존재하지만 상업적인 작품을 택할 수밖에 없는 멀티의 구조는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관객의 취향을 다 만족시키는 힘들다. 그렇기에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은 존재해야 하고 지금까지 전용관이 운영되어온 의미이자 의무였다. 하지만 영화관이라는 공간을 유지한다는 것에는 의미 외에 많은 것이 필요했고,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금씩 쌓여온 그 무게감이 개인이 운영하는 예술영화전용관의 한계를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전국의 예술영화전용관은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극장이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아껴온 영화인들이 그 공간들을 지키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런 공간들을 지원하는 예술영화전용관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권에 휘둘러 정책이 변할 때마다 예술영화전용관들의 운영에 타격을 주었다.

극장이라는 공간은 영화를 상영하고 그 수입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상업적인 구조 안에서의 역할이다. 그렇기에 예술영화전용관도 극장인 이상 이유를 내고 그 이유로 운영을 해야 하는 곳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술영화전용관은 극장이라는 공간적 역할 외에 만들어진 모든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와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단순한 이윤 창출의 공간이 아니며 자립이 아닌 공공 운영에 그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도예술관의 12년에는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의미로만 가득 차 있을 뿐 그 공간의 형태적 보존을 위한 노력과 의무는 모두 개인이 짊어진 채 여기까지 왔고, 그 결과가 지금의 휴관인 것이 현실이다.



**관객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모습**

부산평론가협회, 부산독립영화협회, 국도예술관, 모퉁이 극장, 박배일 감독 외 부산독립영화 감독들은 공동대표로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연대해왔다. 이를 토대로 2018년 6월 5일 부산독립예술영화전용관 설립추진위 발대식을 가졌다. 공간이라는 형태를 하나 만드는 것의 표현적인 방법은 간단할 수 있다. 하지만 독립예술전용관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공간의 의미는 공공재로서의 의미와 역할에 있어 개인이 아닌 관객 및 부산시와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참여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8월 7일 1차 토론회 <부산독립영화관, 청사진을 그리다>가 부산시청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1차 토론회는 "영화적 체험은 상영되는 영화뿐만 아니라 극장이라는 공간에 대한 체험이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관객의 몸이, 영화관이라는 주어진 공간, 고정된 공간과 관계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영화를 왜 보느냐만큼, 어디에서 보느냐 왜 그곳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됨(키멜 르가야)",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편성은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점 현상을 유발시켰으며, 이로 인해 작품의 다양성도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임. 프랑스 등은 멀티플렉스 상영작의 스크린 점유율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예술영화전용관 및 독립영화전용관의 영화 다양성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음"(김이석 부산영화평론가협회 대표 발제문 발췌) 등 독립영화전용관의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11월 23일에는 2차 토론회



회 <독립예술전용관이 지역공동체를 만났을 때>가 부산독립영화제 기간 내 영화의 전당 비프홀에서 진행되었다. 관객의 목소리를 통해 관객이 원하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의미와 모습을 발언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는데, 부산독립영화제 기간 내에 진행되어 관객의 소리를 좀 더 가까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단순 토론자의 발표가 아닌 모둠 형식의 라운드테이블로 <극장이름을?>, <내가 10주년 프로그램을 한다면?>,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것?> 등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각 테이블별로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관객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는 설립추진위의 목적이고 의미이기도 한 '관객의 힘으로 함께 운영하고 만드는 독립예술전용관의 모습'과 닮은 방법이었다. 또한 20주년이 되는 부산독립영화제가 함께한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었다. 국도예술관의 12년 역사에는 부산독립영화협회가 함께해왔다. 그리고 올해로 20주년이 되는 부산독립영화제가 예술영화전용관이 없는 지금 부산의 현실에서 부산의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기에……. 부산독립영화제 20주년 개막작으로 국도예술관의 1년 6개월의 기록을 담은 박배일 감독의 다큐멘터리 <라스트 씬>이 상영되었다. 영화적 의미보다 관객과 함께 연대하기 위한 마음이 더 큰 영화이다. 국도예술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술전용관들과 관객의 의미를 돌아보는 영화이기에 이는 부산독립영화인들의 의지와 함께함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목말라하는 건 '관객'이었다.

내가 원하는 영화를

내가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휴관에 들어가고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새로운 공간이 되었든 관객운동이 되었든 내가 독립예술관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데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었다. “왜?”, “무엇을 위해?” 하지만 결국은 나도 관객이었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현실이 화가 나고 서글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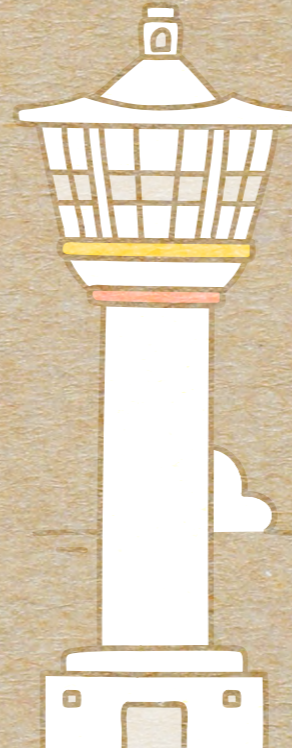
그래서 움직이게 되었다. 관객과 가장 가까이에서 10년을 함께해왔던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관객과 함께 관객의 힘으로 영화를 극장에 거는 일이었으니 말이다. 부정도 해보고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하겠지라며 외면하려 해도 결국 누구나 관객일 수밖에 없기에 이 일은 관객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1월 3일 공간을 떠나지만 국도예술관의 의미는 관객이기에 관객과 함께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이라 말하며 마지막 인사를 했었다.

우리는 모두 관객이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 이전에,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 이전에, 이 모든 것은 관객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이 존재의 의미를 잊는다. 관객에 의해 완성되는 영화와 그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한 관객이지만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만이 관객이라고 생각해버린다.

“국도예술관은 언제 다시 여실 거죠?”라는 질문을 항상 받는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다. 하지만 난 한 번도 대답을 한 적이 없다. 그 답은 나도 설립위원회도 아닌 관객 스스로가 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영화를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어떤 영화든 누구나 볼 권리가 있음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관객이다. 언제든 관객의 권리를 함께 찾을 수 있으며 연대함에 주저가 없을 것이다. 그리니 진정한 관객이 되어주기를, 관객의 권리를 찾아주길기를 바란다.

돌아와요 부산 鄉愛



054 확대경으로 들여다 본 근대의 풍경 부산의 다방
- 강동수 소설가·경성대 교수

060 아시아영화의 행성(行星), 김지석
- 강소원 영화평론가

과거 속으로의 여행 강강이마을 골목
- 문진우 사진가, 본지 편집위원

066



확대경으로 들여다 본 근대의 풍경 부산의 다방

글 강동수 소설가·경성대 교수
사진 사사, 이상길

‘미시사(微視史)’란 것이 흥미한 적이 있다. 정사(正史)에 기록된 거대한 사건의 틀로써 역사를 규정하는 데서 벗어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당대의 모습을 찾아내 생생한 인간의 삶을 복원하고 재해석하자는 시도다. 대표적인 것이 중세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다가 화형 당한 이탈리아의 물방앗간 주인 도메니코 스칸델라의 이야기를 담은 <치즈와 구더기>일 터다. 카를로 진즈부르그가 쓴 이 책은 한 평범한 인간의 삶을 통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서구 사회의 동향을 짚어내고 있다. 단맛에 대한 인간의 탐욕을 고리 삼아 중남미의 설탕농장에서 강제 노동시킬 아프리카인을 납치한 노예무역의 역사를 통해 서구 제국주의의 기원을 밝힌 가와기타 미노루의 <설탕의 세계사>도 마찬가지이다.



추억을 마시다

공간에 스며들다



부산 근현대 미시사의 중요 소재

‘아래로부터의 역사’라고도 불리는 미시사·생활사는 지역사 연구의 방법론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미시사는 결국 민중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부산문화재단이 펴내고 있는 ‘사람·기술·문화총서’도 미시사적 관점에서 부산의 근·현대사를 복원해내려는 시도다. 시장, 노포(老鋪), 만화, 마을버스 등 이 총서가 다루어온 주제들은 바로 부산 사람의 생활사를 기록하려는 노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면 다방(茶房) 역시 미시사·생활사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을 터다. 서양의 사교문화가 ‘살롱’이라는 공간에서 발전해왔다면, 근대 한국에서 살롱에 대비되는 공간이 바로 ‘다방’이다. 다방문화는 일본을 거쳐 이식된 일종의 서양문화이지만, 다방은 개화기 이래 한국인의 사교문화의 일단을 보여주는 공간적 장치다. 단순히 차를 마시는 장소를 넘어서 ‘박래품(舶來品)’이란 단어로 대표되는 서양 문물을 한국인이 어떻게 소비해왔는가를 보여주는 문화적 지표이기도 하다.

개화기와 일제,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다방은 문화예술인들의 작업실이자 응접실, 사교장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서민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곳은 영세 사업가의 사무실이 되기도 했고 선남선녀들의 맞선자리로도 애용됐다. 60~80년대에는 방황하는 청년들의 쉼터 구실을 떠맡기도 했다.

부산의 다방문화도 예외가 아니다. 1876년 근대적 개항 이래 부산은 한일 간 교류의 첨병 역할을 했던 터다. 당시 한국인이 서양문물을 접하는 창(窓)이었던 일본의 근대 문물이 부산을 거쳐 한반도 전역으로 전파되고 소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부산에도 서울 못지않은 다방문화가 존재해 왔다.

개화기 이후 서울과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도 ‘기샤텐(喫茶店)’이란 일본식 명칭을 가진, 일본인이 운영하던 다방이 존재했을 테지만 이쉽게도 문헌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태평양전쟁 시기인 1940년대 광복동에 한국인이 경영한 가장 오래 다방인 ‘에덴다방’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여성 소설가 김말봉, 한무숙 등이 이곳을 자주 드나들었다고, 광복 이후에는 중구 보수동에 클래식다방인 ‘문화장’도 등장했다고 한다.



피란수도 부산에서 꽃피운 다방문화

부산 다방문화의 전성기는 아무래도 한국전쟁으로 피란수도가 됐을 때가 아닐까 싶다. 유진경의 ‘1950년대 부산 중구 다방지도’에 따르면, 이 시절 부산 중구에만 73개의 다방이 명멸했다니. 당시 부산으로 피란 온 서울의 문화예술인들은 이 지역의 다방에서 작업하는 한편으로 사교 활동을 벌이며 고달픈 피란 생활을 견뎌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다방으로는 김동리의 소설 <밀다원 시대>의 현장인 광복동의 ‘밀다원(密茶園)’일 터. 김동리, 황순원, 조연현, 김말봉 등 당시의 중견 문학인이 자주 모였다고 한다. 박인환, 이봉래, 김규동 등 젊은 시인들과 김환기, 이준 등 화가들은 주로 창신동의 금강다방의 단골이었다고.

밀다원은 실연을 당한 시인 정운삼이 <고별>이라는 유고시를 남기고 이곳에서 자살하면서 문을 닫게 됐는데 그 전말이 김동리의 소설에 나와 있다. 1952년 대한미술협회의 전시회가 에덴다방 등 이 일대 다방에서 100여 차례 분산해 열렸더니 당시의 다방은 전시공간의 기능도 떠맡았다고 하겠다. 당시 문화예술인이 자주 찾던 다방으로는 중앙동에 ‘백조’, ‘햇피’, 대청로에 ‘청구’와 ‘루네쌍스’, 광복동에 ‘에덴’, ‘예술구락부’, ‘춘추’, ‘다이아몬드’, ‘오아시스’, 창선동에 ‘휘가로’, ‘늘봄’, ‘망향’, 남포동에 ‘파도’, ‘비월’, ‘뉴서울’, ‘스타’ 다방이 있었다고 전한다.

휴전 후 환도가 이루어지자 부산의 다방은 1/3로 급감했다. 그래도 오아시스, 예주드, 미화당음악실, 필하모니, 전원음악실, 씨앗다방, 무아음악실 등 고전음악감상실 기능을 갖춘 다방들이 명성을 유지했다. 오아시스는 바리톤 김부한, 지휘자 오태균 등 음악인의 아지트 노릇을 도맡았다. 당대의 대학생과 고교생들도 이런 감상실에 출입하면서 질풍노도의 시간을 다스리기도 했다.

이밖에 연극인이 주로 찾던 ‘카페 데아프르’, 미술인이 주로 찾던 ‘릴리다방’ 등이 50~60년대 부산의 다방 문화의 한 축을 떠맡았다.



한국의 근대를 구성하는 공간좌표

70년대 이후에는 DJ들이 활동하던 팝송 중심의 음악다방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음악해설가 김옥균에 따르면, '하늘소음악다방', '동궁다방', '고궁다방', '성궁다방', '청다방', '나무그늘다방', '신라다방', '말다방', '윤경다방', '환경다방' 등이 이 시기 중구 일대에서 성업하던 다방들의 이름이다. 엄혹한 유신시대에 대학생들은 이곳에서 DJ가 틀어주는 존 덴버, 카펜터즈, 엘튼 존, 사이먼과 카펑클의 노래를 들으며 헐벗은 청춘을 위무 받았다.

서민들이 드나들던 다방도 성업했다. 그곳에선 화장을 질게 한 레지들이 나이 지긋한 단골을 상대로 날달걀을 깨 넣은 쌍화차나 도라지위스키, 차에 위스키를 섞어 넣은 '위티'의 매상에 열중하기도 했다. 두루마기에 중절모를 쓴 촌로와 한복을 입은 나이든 여성에 둘러싸인 선남선녀들이 얼굴을 붉히며 초대면하는 맞선 장소로도 쓰였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유구한 다방문화는 지금도 '카페'라는 이름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전포동 대우버스공장과 철물점 등이 들어차 있던 자리에는 2010년께부터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카페들이 들어서기 시작해 '전포카페거리'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지금은 카페가 250곳이나 된다. 이곳은 뉴욕타임스가 추천한 '꼭 가봐야 할 세계명소 52곳' 중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엔 인근에 '전리단길'이 생겨났고, 이어 망미동에 '망리단길', 해운대에 '해리단길' 하는 식으로 서울의 '경리단길'을 모방한 새로운 카페거리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서두에서 말했듯, 다방은 개화기 이후 한국인의 서양문화 소비 기호였다. 그곳에는 낭만과 우수도 있었지만 서민들의 치열한 생존현장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다방은 한국의 근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좌표의 하나이자 근대의 표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산문화재단 총서의 다섯 번째 책은 '부산의 다방'에 바쳐졌다.

이 책은 다방이란 공간에서 희로애락을 겪었던 부산 사람들의 삶의 풍경화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한국전쟁기와 50~80년대 부산 다방의 풍경을 시기별로 정리했다. 부산에서 명멸했던 술한 다방들의 흔적과 그 다방에서 펼쳐졌던 시대의 풍속도를 복원해내기도 했다. 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카페의 모습도 담았다. 부산의 다방사를 한 권의 책으로 압축해 낸 셈이다. 지난시절 추억과 낭만, 그리움의 공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보시려거든 이 책부터 먼저 뒤적여 볼 일이다.

아시아영화의 행성(行星), 김지석

글 강소원 영화평론가

김지석(1960-2017)
부산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
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

시작과 끝

1996년의 부산국제영화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지 모르겠다. 결과가 나온 후에 성공의 비결을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그 거꾸로는 무척 어려운 반면), 첫 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은 보고 있어도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 성공에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 묻는다면,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단 하나다. 거기에 '김지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국제영화제라는 꿈은 김지석의 것이었고, 오직 그만이 그 꿈에 확신을 가졌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그 꿈이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자, 그의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 되었다. 2017년 5월 19일 칸영화제. 끝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왔다. 먼 곳에서 날아든 새벽의 비보는 너무나 황망해서 믿을 수 없었다. 김지석이 없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상상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가 없는 영화제를 두 해나 치른 지금도 문득문득 그가 여기 없다는 사실이 갑작스런 통증처럼 우릴 습격해오곤 한다.

이를 테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의 손님들을 소개하는 익숙지 않은 목소리에서, 그가 발굴하여 국제적인 거장이 된 아시아감독이 신작으로 무대에 올랐을 때, 해외출장이 아니라면 언제나 터춤패감처럼 지키고 있던 사무국 그의 빈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20여 년간 들었던 목소리가 여기 없고, 아시아 거장 감독들은 호스트 없는 게스트가 되었고, 이젠 그가 정말 여기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들. 57세의 아직 젊은 그는 칸에서 갑작스레 작별을 고했고, 나는 아직도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부산국제영화제라는 꿈

내가 기억하는 한 가장 젊은 시절의 그를 떠올려본다. 이십대의 그는 가난했고 목소리가 아주 작았고 약간 소심해 보였다. 부산국제영화제 전에 김지석은 '그냥 평범한' 선배였다. 부산대 공대를 다닐 때부터 영화동아리 활동을 했던 걸 알고 있지만, 영화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에게는 학위가 두 개 있다. 공대 대학원 석사 학위와 영화과 석사 학위. 학부와 석사를 공대에서 하고 그 계열에서 삶의 비전을 찾으려 했던 그가 돌연 길도 없는 길을 선택한 셈이다. 공대 출신의 영화 평론가라니, 당시 경성대 영화과의 이용관 교수(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는 영화 공부를 하는 이들 중 가장 이상한 사례로 그를 언급하고는 했다.

뒤늦게 영화과 석사 학위를 받을 즈음 그는 이미 부산 프랑스로문화원의 '시네클럽' 창단 멤버이자 한국의 첫 계간 영화비평지 『영화언어』의 평론가 그리고 영화과 시간강사로 활발히 활동하는 부산의 시네필 1세대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아마도 그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한 그의 매우 사적인 활동 중 하나는 해외영화제를 자비로 다니면서 '부산에서 여는 국제영화제'의 꿈을 구체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꽤 오랫동안 자신의 꿈을 공유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끈기 있게 그들을 설득했고 안 되면 매달렸다.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그의 열망은 너무나 강렬해서 도리어 황당할 지경이었다. 돌이켜보면 그의 확신과 열망이 얼마나 잘 전달되었을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 꿈을 말하는 그는 매우 집요했고 절대로 지치는 법이 없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그 얘기를 흘려들었다. 혹은 듣고도 못 들은 척 했던 것 같다(실은 귀담아 들었대도 도움이 못 될 처지였다). 우리가 본 건 꿈과 현실 간의 간극뿐이었다. 당시 그가 부업으로 차린 프라모델 장난감 가게가 생생한 현실이라면, 부산국제영화제는 할리우드 영화의 공상 같기만 했다.

그 뒤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주 멀리, 높이 비상하였다. 어쩌면 그가 꿈꾸던 것보다 더 멀리 더 높게. 그리고 영화제가 19년차에 접어들던 시기에 'BIFF 사태'를 맞았다. 그것이 그를 얼마나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었는지는 이 자리에서 더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우리는 그 일이 없었다면 그가 여전히 여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믿고 있다.

그는 아시아영화의 행성 같은 존재였다.
 제 자신은 빛을 내지 못하지만 아시아영화라는 항성을 향해
 쉽 없이 궤도를 돌았던 별.

아시아영화를 위하여

사실 그는 재미없는 사람이었는데, 영화제 전이나 후나 그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부산국제영화제뿐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얘기들은 부산국제영화제로 시작하여 부산국제영화제로 끝나고 는 했다. 그럼에도 그를 떠올리면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 좀 특이한 이력으로 말하자 면 한때 그의 주요 스케줄에 빠지지 않았던 일정이 맞선이었다(그는 맞선을 백 번쯤 보았다. 그 의 가장 친한 친구인 영화감독 오석근은 그를 모델로 <백한 번째 프로포즈>(1993)라는 영화 를 만들었다).

그리고 엄청난 주당들로 넘쳐나던 영화계에 그는 술을 못 마시는 길로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 체 질적으로 한 모금의 술도 하지 못했지만 술자리엔 빠지지 않았고 운전해서 취한 사람들을 데려 다주고 나면 가장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것은 그였다. 술과는 인연이 없었지만 대단한 식도락가 였던 그는 밥때가 되면 앞장서길 좋아했다. 음식은 그에게 영화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 를 테면 “이 집 밀면이 부산 최고지.”, “여기 만두는 부산에서 두 번째!”라는 식으로 찬미의 대 상이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아시아감독들은 김지석의 이름과 더불어 그의 손에 이끌려 맛보았던 음식들을 함께 떠올릴 것이다.

무엇보다 그가 아시아영화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귀를 쫓긋 세워야 한다. 발음도 어 려운 낱선 이름이 그의 입에서 휘락하고 흘러나오면, 몇 년 되지 않아 전 세계 영화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제 이름처럼 자연스럽게 발음하게 된다. 지아장커, 차이밍량, 고레에다 히로카즈, 모 흐센 마흐말바프, 자파르 파나히, 아딧야 아사랏, 아핏차퐁 위라세타쿤……. 김지석은 이들을 발굴하고 거장으로 키워냈다. 그리고 이미 거장이었던 허우샤오시엔,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등 과 손잡고 여기 부산에서 현대 아시아영화의 영예로운 순간들을 창조해냈다. 그 모든 순간이 아시아영화의 역사가 되었다.

감독 아닌 누가 그만큼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아시아영화의 행성 같은 존재였다. 아시아영화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눈 밝은 평론가였으며 국제영화제 서킷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아시아영화 전문 프로그래머였다. 제 자신은 빛을 내지 못하지만 아시아영화라는 항성을 향해 쉽 없이 궤 도를 돌았던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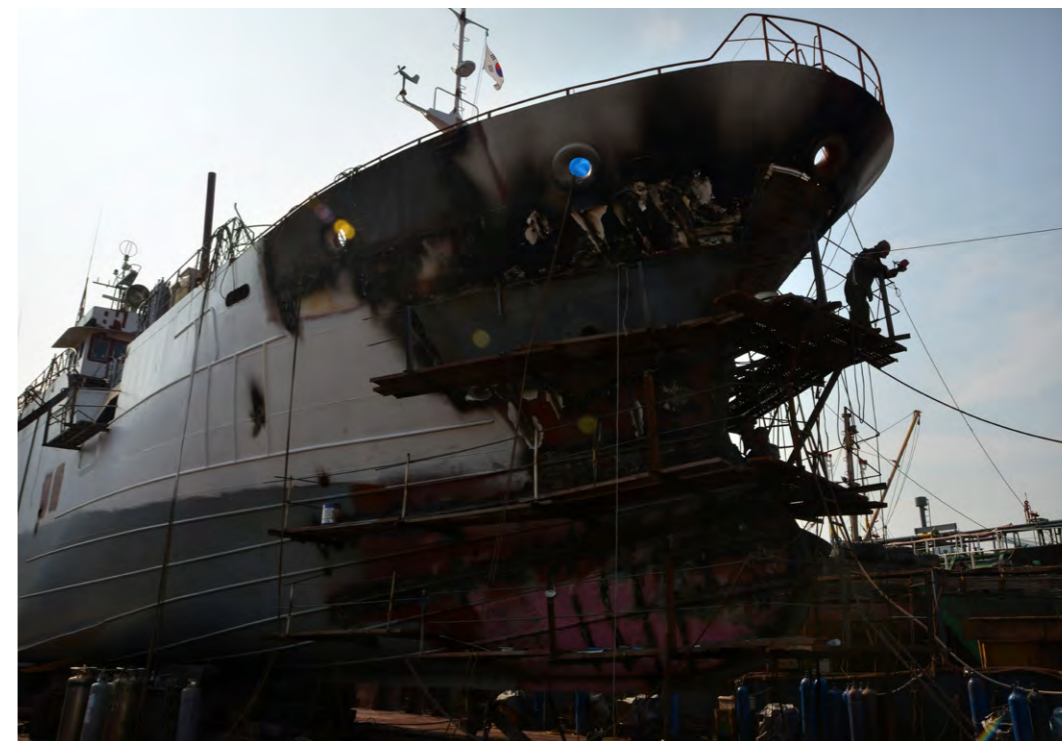
그가 떠난 그해 정부는 아시아영화에 대한 그의 공헌을 기려 보관문화훈장을 추서했고, 영화제 는 ‘지석상’을 신설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지석영화연구소’ 설립을 알 렸고, 그에 관한 다큐멘터리 <지석>(김영조 감독)이 제작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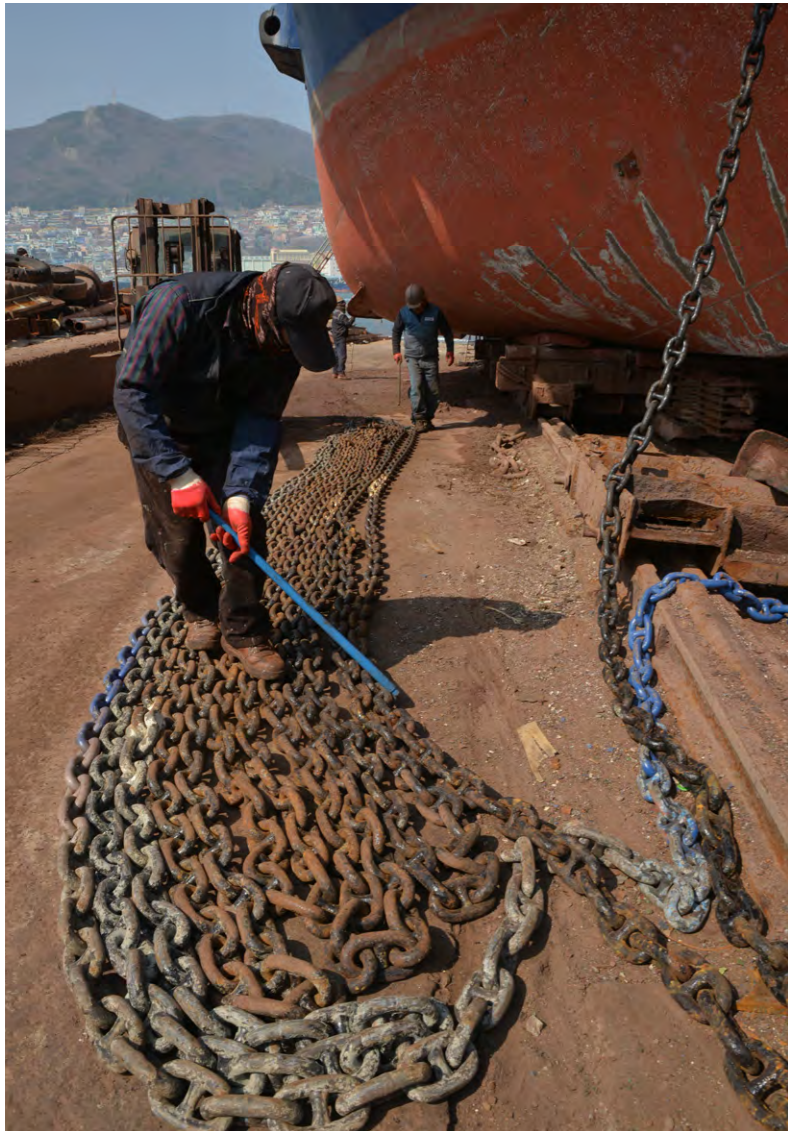
과거 속으로의 여행

깡깡이마을 골목

글·사진 문진우 사진가, 본지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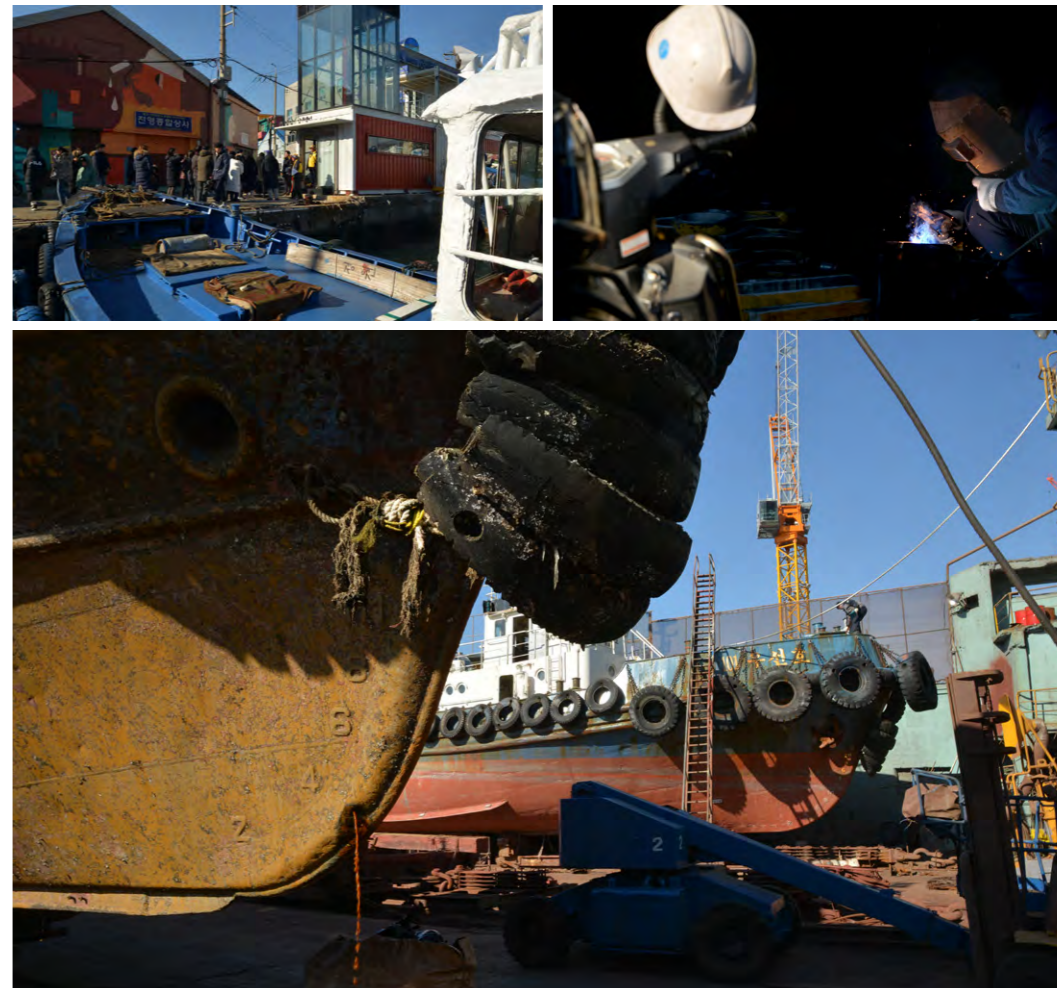


영도 대평동 일대에 수리조선소가 밀집해있다.
국내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인 다나카조선소도 이 곳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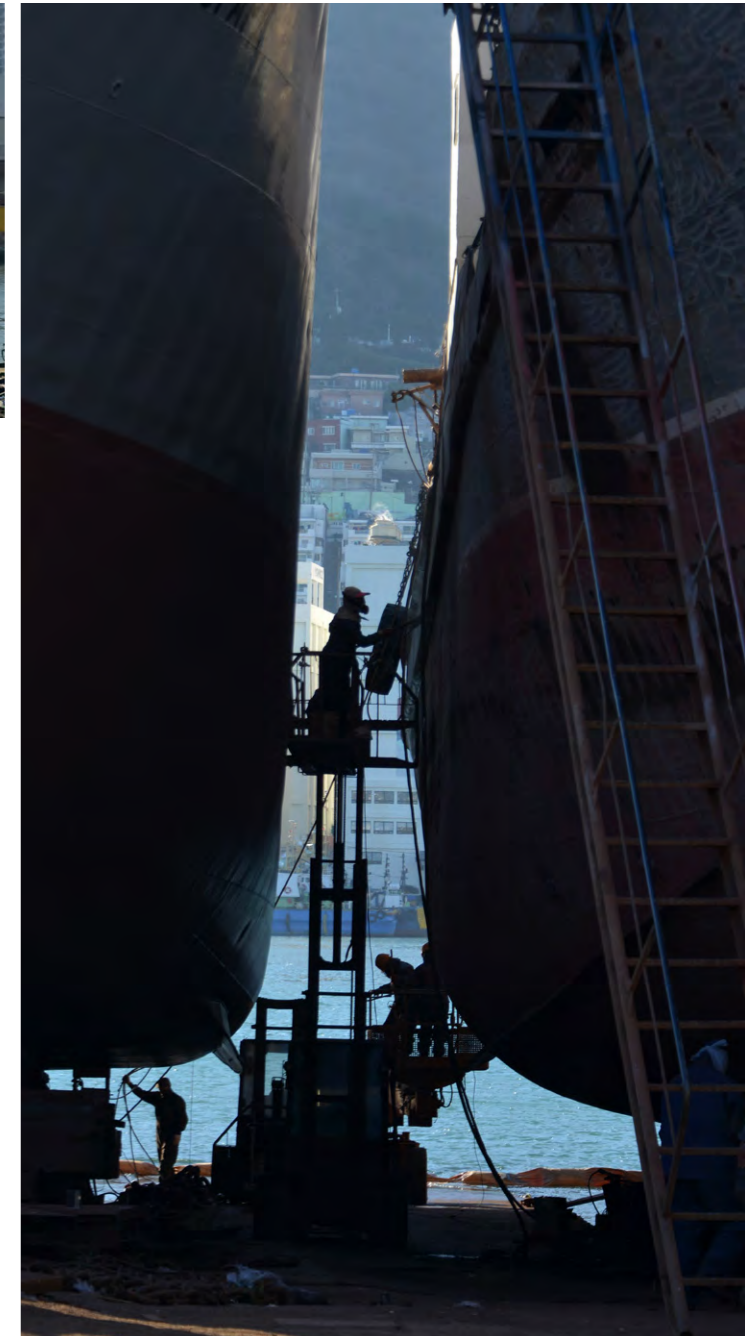
수리를 위해 들어온 낡은 선박의 표면에 붙은 녹이나 페인트 등을 벗겨내기 위해서 망치질을 한다. 이때 '깡깡' 하는 소리가 난다. 깡깡이마을이란 이름은 여기서 유래되었다. 주로 아주머니들이 이 일을 했는데 낙상사고, 난청, 진폐증 등에 시달리면서도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어머니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이 일대가 예술 마을로 변신,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영도경찰서 뒤쪽을 돌아가면 깡깡이마을 안내소와 선박체험관이 있다. 거기서 시작하여 해안가 쪽으로 10여 개의 수리조선소가 이어진다. 지금은 망치 대신 주로 그라인더로 작업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동네 안쪽으로는 250여 개의 조선 관련 공업사가 있다.
 건물의 벽면에 그려진 컬러풀한 벽화가 골목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특히 독일의 그래피티 화가가 대교맨션 벽면에 그린 대형 아주머니 초상은 이 마을을 상징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마을을 돌아보면 조선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흔적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속으로 여행 온
 착각을 느끼게 한다.
 이렇듯 갯강이마을은 마을이 품고 있는
 역사적 자산과 정체성을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잘 만들어낸 곳이다.

그리고 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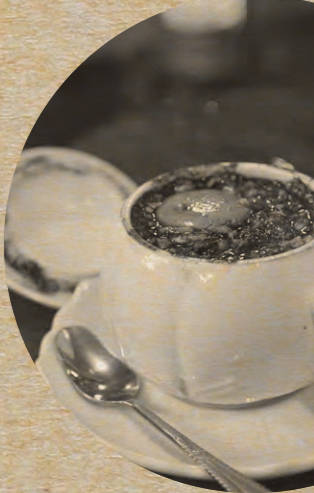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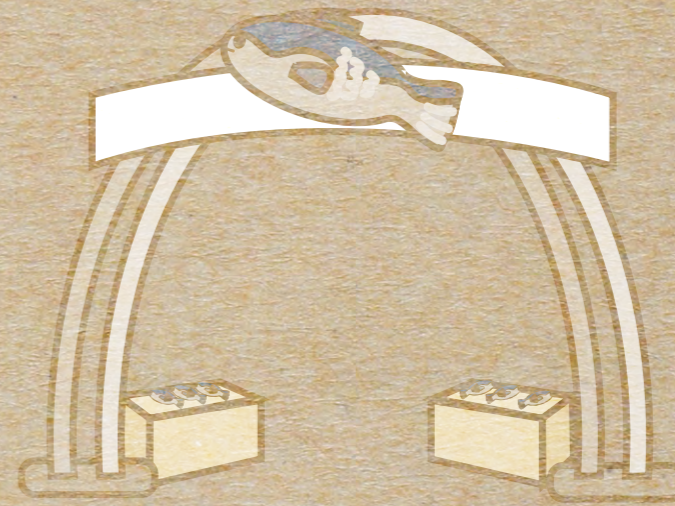
074

공업 단지에 피어난 예술 무지개 흥티아트센터
-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076

부산문화재단 AFIT(Artist + Benefit) 카드 출시
- 안혜민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숫자로 보는 2018 부산문화재단 078



공업 단지에 피어난 예술 무지개 홍티아트센터

정리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사하구 무지개공단 옛 홍티포구에 자리 잡은 '홍티아트센터'. 설치미술 중심의 창작공간으로 수많은 국내외 작가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예술인 창작지원은 물론, 예술작가들이 머물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창작공간이다. 홍티아트센터는 입주예술가 레지던시,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창작공간으로 일본(Bank art 1918, 큐슈예문관), 영국(발틱현대미술관), 프랑스(낭트 파라다이스 갤러리) 등 국제적인 레지던시 공간과의 교류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입주예술가 릴레이 개인전, 흥커밍데이, 홍티예풍,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오픈스튜디오 등을 개최하며, 예술가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2013년 개관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총 53명의 입주예술가들이 거쳐 갔고, 약 2만 8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하며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즐겼다. 과연 그동안 홍티아트센터에서 지냈던 예술가들은 이 공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입주예술가들에게 들어보았다.
홍티아트센터는 이런 곳이에요!

올해는 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로 작업하면서, 부산과 대만에서 홍티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보다 집중하여 그동안의 작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홍티의 좋은 공간과 그 안에서 구성되는 흥미로운 전시와 실험들이 앞으로 부산시민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게 작업하기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의 노을을 보며 산책하던 것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고, 점심때쯤 홍티에 탁구 치러 오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좋았어요. 홍티아트스페이스는 공단 사람들과 인근 마을사람들에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올 상반기 홍티아트센터에서 작업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부산지역 내 타 기관이나 다른 지역은 물론 해외까지 섭렵하며 여러 예술단체와의 교류 기회가 많았으며, 센터 내 시설도 훌륭해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다. 특히 부산문화재단 임직원분들과 센터 담당자 선생님들 모두 작가들이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주셨고, 많은 기회를 주려고 애쓰시는 걸 항상 느낄 수 있었기에 정말 감사드린다.

홍티아트센터 앞에는 내 키만 한 잡초가 있다. 그 잡초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을 따라 슬레이트에 작은 흠집이 나는 것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지금을 살아내는 그들을 보며 내가 움직이는 이 몸짓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발끝에 차이는 이따리 정도라 생각했던 얇은 풀덩어리는 때로는 내 키가 되기도 하고 어쩌면 하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반성과 작은 파동의 경험을 하게 해준 홍티였다.

작가에게 작업실은 집보다 더 중요하고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입주한 작가들과 미술에 대한 생각, 방향, 상황 등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지원받고 있다는 실질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AFIT(Artist + Benefit)

예술인들에게 딱 맞는(FIT) 혜택

부산문화재단

AFIT(Artist + Benefit) 카드 출시

글 안혜민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CM



부산문화재단이 부산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및 그 가족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FIT 카드를 출시했다. AFIT 카드란 'Artist'와 'Benefit'의 합성어로, 예술인 및 그 가족들에게 예우제도를 도입하여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만든 멤버십 서비스의 일환이다. 이 카드를 통해 재단과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카드 회원 종류는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하얀 백지를 하나둘 예술로 채워내는 예술인들을 위한 <화이트 회원>과 열정 가득한 재단의 후원회원, 서포터즈, 임직원 등을 위한 <레드 회원> 2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카드는 문화예술기관, 의료, 장례, 숙박, 기타 레저 등 재단과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AFIT 카드의 혜택은 협의를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각 기관별 혜택은 카드 뒷면의 QR코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본 카드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카드의 본격 발급은 2019년 상반기부터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051-745-72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숫자로 보는 2018 부산문화재단

예술인 창작 지원 및 복지 확대

공연예술 재공연지원 운영
9 건, **209** 백만 원 지원

예술인 창작활동의 시민지향적
지원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현장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현장평가서
345 건 접수 (12월 초 기준)

예술활동증명 등록 대행
496 명(누적 **3,490** 명) (12월 초 기준)

예술인패스 등록 대행
522 명(누적 **2,666** 명) (12월 초 기준)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감만창의문화촌
감만아트페스티벌 등
2,500 명 참여 및 관람

F1963
문화예술사업
총 **17** 회, **23,689** 명 관람

또따또가
시민문화예술프로그램 등
37 회, **44,986** 명 참여

문화적 기억을 활용한 문화유산 가치 확산

조선통신사 역사관 방문 관람객
42,745 명 전년대비 **120** % 증가 (11월 말 기준)

조선통신사 콘텐츠 활용 다각화
- 조선통신사 선(재)현선 승선 체험
- 마상재 시연을 통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

조선통신사 국내 등재 기록물 도록 및 등재과정 백서 발간

네트워크 기반 문화공유 플랫폼 구축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27 개 팀, **122** 명 청년예술가 참여
총 **137** 회 진행

공유문화플랫폼365 운영
192 건 콘텐츠 등록
(12월 기준)

생활문화 네트워크 페스티벌
다가치놀자
생활문화동아리 및 일반시민
3,183 명 참여

거리로 나온 예술 활성화

대규모 축제형 거리예술 사업 지원
및 기획형 사업 운영
3 일간 **5** 개 사이트, **48** 회 공연 (김남진피지컬씨어터)

부산 도심공간과 결합한
실험적인 예술활동 지원
기획형 **1** 개 팀, 일반형 **5** 개 팀 선정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장애 예술인 역량 강화 위한
해외 전문가 워크숍 개최
123 명 참여

문화다양성 페스티벌 개최
50 개 단체, **5,000** 여명 시민 참여

일반 시민들이 주도하는
지역별·장르별
생활문화예술제 개최 **21** 회

문화소외시설 대상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사 진행 **165** 건

고령자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2,564** 건

안정적 경영환경 구축

홈페이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채널 방문자
606,455 명 (12월 초 기준)

혁신발전추진단(UNIT) 회의 운영
17 회

가족친화경영 - 유연근무제 도입 - 장기근속 휴가제 도입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재정 관리 다각화 - 신규 기부 및 후원 발굴
- 정기예금을 비롯해 채권기업어음·집합투자증권(위탁) 등 분산운용하여 이자수익 창출 확대

2017~2018 상반기
부산 출판사 신간도서

부산에서 만나는

책

들여다보기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의 모~든 소식 여기다있네!

#부산문화재단 SNS와 친구를 맺어야 할 이유

언제 어디서든
부산문화재단의
소식을 받을 수 있다.

부산문화재단과
실시간으로 1:1 상담이
가능하다.



부산문화재단



좋아요



이웃신청



구독 신청



팔로우



엘로아یدی 친구 추가



계간지 「공감 그리고」 주요 배포처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며, 배포를 희망하시는 문화공간이나 단체는 부산문화재단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745-7224)

감만창의문화촌/조선통신사역사관/CATs 사상인디스테이션/홍티아트센터/F1963/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도시철도 북 하우스(시청역, 중앙역, 연산역, 온천장역, 수정역)/부산관광안내소(노포동, 부산역, 김해공항)/부산시립시민도서관/부산시 중앙도서관/부산국립국악원/부산시립미술관/부산시민회관/부산문화회관/울속도문화회관/금정문화회관/동래문화회관/영도문화예술회관/해운대문화회관/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상상공간 아르케/모퉁이극장/부산지역 작은도서관 등

부산문화재단 후원회원 모집

여러분을 부산의 문화예술인으로 모십니다.

부산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분! 산소처럼 부산문화재단과 늘 함께하고 싶은 분!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 화려함보다는 꾸준한 관심으로 재단과 기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 되어 단단한 후원을 쌓아가는 당신이야말로 부산의 문화예술인입니다.

후원혜택 1

- 세제 혜택(연말정산 등)
- 재단 기념품 증정
- 재단 발간도서 발송(공감 그리고, 연차보고서 등)
- 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 시민평가단 우선순위 배정

후원혜택 2

- 일반회원 : 매월 1만 원 정액 납부
- 연간회원 : 매년 20~50만 원 정액 납부
- 평생회원 : 500만 원 이상 일시불 납부
- 단체회원 : 단체, 기관, 법인, 기업이 1,000만 원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

후원혜택 3

-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bscaf.or.kr ▶ 알림마당 ▶ 후원회원 모집 ▶ 후원회원 가입 신청하러 가기
- 문의전화 : 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051-745-7252)